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예레미야 1장 5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19년 2월 23일 (토) 제 1719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임신 하청” 아닌 “축복 나눔” 으로

CT, 미국서 급속도 확산되는 “대리모 임신” 찬반논쟁과 현황소개 그리고 교회의 준비 요구

맥 왓우드는 수개월의 불임시술 끝에 첫 번째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확인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3년 후, 같은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검사에서 왓우드는 이번에도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임신을 기뻐하는 다른 엄마가 한 명 더 있었다.

왓우드는 그 여성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다. 아이를 얻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검사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왓우드는 불임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깊은 연민을 품게 되었다.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간절한 심정에 어느 불임 부부의 배아에 자신의 자궁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왓우드는 작년에도 또 다른 부부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었다. 의사들은 몇 차례의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실패 끝에, 엄마가 되고 싶은 이 여성이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텍사스주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이 부부는 왓우드처럼 낙태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미 생산한 배아를 그냥 폐기하고 싶지 않았다. 부부는 그 지역 대리모 임신 에이전시를 통해 남침례교 교인인 왓우드와 연결됐다.

지금 네 자녀를 둔 서른아홉 살 주부 왓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제게는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대리모 임신 과정에서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하지만 상상 이상으로 큰 축복을 누리실 거예요.”

왓우드의 사례는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의 대리모 임신 추세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대리모 임신을 통해 출산한 아이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 10년간 4배로 늘었다. 대리모 임신을 둘러싼 윤리적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잠잠해질 줄 모르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티투데이(CT)는 미국 대리모 임신의 현주소와 이에 따르는 윤리, 도덕적 문제들을 자세하게 짚어준다 (America's Surrogacy Bump: Is Fertility a Blessing to Be Shared? Subscriber Access Only: Pro-life carriers and Christian bioethicists navigate the patchy landscape for assisted reproduction).



미국생식의학회에 따르면 2015년에 대리모 임신을 통해 출산한 아이는 2,807명으로 2004년 738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 체외수정으로 임신돼 유전적 연관성이 없는 산모가 출산하기 때문에 “임신 대리출산”으로 불린다(오늘날에는 보기 드물지만 체외수정 이전에 유일한 대안이었던 “전통적 대리출산”은 산모가 아이의 유전적 어머니였다).

다른 나라들에서 외국인의 대리모 임신 사업을 막으면서 미국 내에서 체외수정과 대리모 임신이 좀 더 일반화돼, 미국이 대리모 임신 원정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대리모 임신-대개 1회 출산으로 2만 달러 넘게 번다-에 대한 높은 수요는 많은 복음주의 여성들을 끌어들이었다. 이들은 ‘이상적’ 대리모의 조건에 부합하는 데다, 자신의 생식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생각에도 쉽사리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모 임신을 둘러싼 법규와 윤리적 논의는 대리모 임신 산업의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대부분의 복음

자들과 교회는 삼자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정과정에서 대리모와 부부들에게 조언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먼저 대리모 임신을 권장하는 연방법은 없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은 주 경계를 넘어서 대리모 임신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법규 사이를 뚫고 대리모를 찾아야 한다. 그마저도 절반이 넘는 주에서는 대리모 임신에 대한 법규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생명을 창조하고 탄생하는 새로운 방법들에 뒤따르는 이런 심각한 윤리적 질문들에 대한 합의-때로는 인식-없이,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규제 없는 대리모 임신 환경에서는 당장 개선의 여지를 보기 힘들다. 교회 내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보조 생식술과 대리모 임신과 관련된 시나리오들에 이견을 보이거나 아무런 답이 없을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철저히 준비하고 성령께 맡기라!

리더십저널, 소그룹운동 전문가 조엘 코미스키 (Joel Comiskey)의 소그룹 시작 활성화 방안 소개

이제 새로운 소그룹이 막 시작되는 시기다. 올 한해 소그룹에서 사용할 교재, 또는 교회의 한해 표어를 정하는 것은 소그룹 모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그룹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그룹 리더의 준비다. 좋은 리더가 좋은 소그룹을 만든다.

좋은 리더는 구성원을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잘못을 바로잡을 줄 안다. 토론을 자연스럽게 이끌면서도 주제를 확실히 안내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도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주도하게 두지는 않는다. 좋은 리더는 이처럼 여러 중요한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기술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성령께서 소그룹 리더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셔야 한다.

한 해의 사역을 앞두고, 소그룹 리더가 먼저 성령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 성령충만을 구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매일 새로운 도움을 주시도록 요청해야 한다. 성령만이 우리 소그룹의 유일한 주인이요 인도자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전달하는 위임받은 일꾼들이다.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성령께 집중하라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소그룹 리더는 모임을 성실히 준비해야 한다. 적어도 소그룹 모임이 시작하기 30분 전에 모든 사전 준비를 끝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과준비나 다과준비 모두 분주히 진행해서는 안 된다.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마음을 잠잠히 하며 성령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기도한다. 성령만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구성원의 어려움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중요한 것은 리더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되, 자신의 계획과 준비를 최우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를 기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융통성 있는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 리더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민경엽 목사



3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우 목사



8면 청교도 신앙 이윤석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오프믹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별정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 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 VA-APPROVED (현역, 퇴역 미국 군인 및 가족 장학혜택) ◀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chelor of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ster of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al Arts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 발행인 칼럼 ●

UPSIDE DOWN KINGDOM

-3.1 독립선언 100주년에 부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기미년 삼월 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3.1절 노래는 정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였다. 기독교인 16명을 포함한 민족대표 33명이 태화관에서 모여 미리 준비된 3.1독립선언서를 선포했다. 그 날 탑골공원에서 외쳐졌다. 그 후 전국에 들끓처럼 번진 독립선언은 일본의 강점에 놀리고

시달린 모든 한국인 스스로에게 보다 분명한 항일 독립운동의 방향과 용기를, 일제에겐 당혹함과 두려움을, 비슷한 처지의 주변국가에는 희망을, 세계만방에는 경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 작은 씨앗이 다양한 요인과 함께 어우러져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을 이루어내었다. 광복 후 만 5년이 되기 전에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과 보리 고개의 골짜기를 거치는 크나 큰 위기도 있었으나 대한민국은 끝내 큰 발전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복(顛覆)의 나라(UPSIDE DOWN KINGDOM)”이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강한 자는 약해진다. 그 나라에선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걸지 못한 자는 다시 걷게 된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 그 나라의 원리이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제작된 “말모이”라는 영화에서는 일본 강점 하에 우리나라 말을 빼앗긴 아픔을 처절히 보여주었다. 한국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실화적 영화였다. 일본에게 왜 말만 빼앗겼는가.

그토록 약하고 처참했던 대한민국이 3.1 독립선언 이후 놀랍게도 100년 만에 여러 면에서 거대한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upside down kingdom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앞서 보여준 나라는 어디인가? 이스라엘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도 upside down kingdom이 되어 가난한 땅에서 번영을 이루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번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남북으로 나뉘었다가 앗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가난한으로, 가난에서 바벨론으로 계속 upside down kingdom 된 것처럼, 지금의 한국도 upside down kingdom이 반복될 위기를 맞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upside down kingdom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는 눈물꽃물 쏟으며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라서 그렇게 된 줄 아는 것이다. 번영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다시 바벨탑을 쌓으려는 기세를 보인다.

새 시대를 선언한 기미독립선언서 자체에서는 어디에서도 교만함을 엿볼 수 없다. 그 선언문이 기초되고 완성되고 외쳐지고 확산되는 데는 기도의 눈물들이 겸비하게 서려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나라를 강하게 역전 시키사 upside down kingdom으로 만들어 주셨건만 100년 전의 그 겸손은 어디가고, 강한 자가 약해지는 재역전의 upside down kingdom을 자초하려함은 무슨 일인가.

...아아, 新天地(신천지)가 眼前(안전)에 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의 時代(시대)가 去(거)하고 道義(도의)의 時代(시대)가 來(내)하도다....

노력은 이제 그만...높은 기대치 역효과

BBC, 스트레스에 빠진 밀레니엄 세대의 무기력 증후군 소개

“아주 작고 기본적인 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어요.”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게 어른이었는데 그 해야 할 일에 모든 것이 포함되고 멈추지를 않았죠.” ‘버즈 피드’ 뉴스 헬렌 피터슨 기자의 ‘밀레니얼 세대는 어쩌다 무기력한(번아웃) 세대가 됐는가’라는 기사에 나오는 말이다 (How Millennials Became The Burnout Generation?)

그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 태어난 ‘밀레니얼’들을 관통하는 ‘무기력’을 조래한 원인을 분석하며, 짧아지는 근속연대리모 공장수, 잦아지는 퇴사,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이들을 조명했다. 밀레니얼 번아웃을 소개한다 (Is there an answer to millennial burnout?)

기성세대가 ‘요즘 애들’을 두고 자주 하는 비판 중 하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기성세대는 ‘흔히 편하게 자란 청년세대의 끈기 부족’을 지적해왔지만 피터슨은 오히려 청년세대에 씌워진 부담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아이를 사회에 준비된 인력으로 키우려는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과 이를 방해하는 취업난, 그리고 이어지는 경제적 압박 등이 더해져 청년세대가 쉬지 않고 일해 왔다는 것이다.



능해볼 수 있다.

역효과

직원들의 번아웃을 막기 위해 더 ‘강하게’ 훈련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례들에 따르면 이는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완벽주의자나 자기 비판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 난이, 스트레스 가득한 업무 적응법 가르치지 말고 단순화, 지장 주는 요소 제거하며 효율 늘릴 방법 찾아야

밀레니얼 세대는 자기 최적화와 자기 계발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신적 탈진

번아웃 증후군은 보통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열정을 잃어버리는 증상의 통칭하는 용어다. 정신적 탈진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번아웃의 원인으로는 주로 가중된 업무, 미비한 보상, 불공정한 작업, 가치와 충돌하는 업무, 업무 내 커뮤니티의 부재 등이 있다. 번아웃은 보통 스트레스가 높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다. 밀레니얼이 받는 스트레스는 다르다.

밀레니얼 세대가 높은 비율로 번아웃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업무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스트레스가 없는 업무 환경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 스트레스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46년-1964년)보다 정서적 고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아웃의 큰 원인 중 하나인 ‘경쟁’을 예로 들면, 밀레니얼 세대는 인터넷, SNS 등의 범용화로 더 많이, 자주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자연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더 잦아졌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또 젊은이들 사이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도, 마음의 병이 퇴사를 영향을 끼치는 비율도 높아졌다.

높은 기대치

밀레니얼의 높은 번아웃 빈도는 그들의 ‘높은 기대치’와도 연관 깊다. 이전 세대가 겪었던 사회 경제적 제약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때때로 그들을 오히려 사슬이 된 다. 기대치를 높게 설정한 상황에서 실패를 피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다보니 상황이 예상외로 재개될 때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특히 이들 중 자기 비판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은 번아웃에 더 취약하다. 오픈 대학 강사 라지빈더 사무라는 이 때문에 오히려 유능하고 건강해 보이는 이들이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한 연구진은 실제 1970년대 항공 교통 관제사 400명을 상대로 3년간 업무 탄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관제사의 99%는 자기관리에 능해야 하는 군인 출신이었는데 대부분이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했다.

연구진은 군인 출신 관제사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충분한 훈련 없이 적용하고, 매일 같이 야근에 시달리는 업무환경에도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번아웃을 조래했다고 분석했다.

망가진 틀 안에서 너무 열심히 달린 것이다. 관제사들이 1970년대 경험했던 기대치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의 기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상기해봤을 때, 밀레니얼이 특히나 번아웃에 취약한 이유도 가

면 더더욱 위험하다. 그래서 이상을 좇는 것은 중요하지만 밀레니얼 세대가 그것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멘탈’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관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자녀가 우리 멘탈이라고 해서 더 강하게 질책하거나 훈련시키는 관습도 오히려 역효과만 재생산할 수 있다. 너무 큰 기대치가 주어진 순간 이를 수 없는 이상에 사로잡혀 잘못된 시스템을 관용하고 자기 자신을 혹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을 질책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를 되돌아봐야 할 때다. 복잡하고, 어렵고, 스트레스 가득한 업무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순화하고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효율을 늘려 나갈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대표) (323) 665-0009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1983, KACLA, Korean-American Christian Literature Association

2019년 제1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크리스찬문학 30집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1회 신앙도서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독후감에 당선되는 분은 크리스찬문학 30집에 게재하고 회원으로 가입됩니다.

- 작품 소재: 신앙서적, 종교적인 내용
- 응모 마감: 2019년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 작품제출처: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Tel (213) 249-0771
1655 W. Marine Ave., Gardena, CA 90247
- 심사위원: 문단의 중진들에게 위촉하고 당선자와 함께 발표함.
- 발표: 2019년 4월 30일, 미주판 신문에 공고하고 입상자에게는 시상 일시와 장소를 개별 통지함.
- 특전: 전 입상자는 본회의 회원이 되며, 제 30집 크리스찬문학에 게재한다.
- 기타: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이름을 독후감과 같이 제출해주세요.
Letter 용지 앞, 뒤 1매이다.
작품에는 반드시 이름(본명-한글, 영문),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며, 겹 봉투에는 '미주크리스찬문학협회' 기재할것, 마감일 소인유효함.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되, 응모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주최: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 후원: 작가의 집, Joy 기독교 서적

크리스찬문인협회 2019년 임원명단 회장: 정지윤 부회장: 송원, 김상분

담임목사 청빙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에 소속된 캘리포니아 북가주 산호세에 위치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자체 성전과 교육관을 갖춰 한인 성인예배 EM(영어권 예배)이 동시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지난 40년동안 영혼을 사랑하며 선교사명을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목사님께서 정년 은퇴하심으로 제 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신학대학원 (M. Div.)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받으신 분으로 목양의 열정과 영혼구원을 위해 애쓰며 행동하는 신앙의 분을 보이실 분.
-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이 가능하신 분.
- 목사안수 후 5년이상 담임목사, 선교사, 부목사로 헌신하신 분.
- 미국내 목회활동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구비서류

- 이력서 (최근 가족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성장배경, 신앙간증, 소명, 목회경험, 사모 및 가족소개)
- 학위증명서 (대학,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증서)
- 목회자 2인의 추천서 (확인 할 수 있는 전화 및 e-mail 주소 기입)
- 최근 설교 2개 (CD/DVD 또는 동영상주소)

접수마감 : 2019년 5월 31일

제출처

- e-mail이나 아래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청빙위원회 e-mail : yesokpositive@gmail.com
- 보내실 곳: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Attn: 청빙위원회)**
1721 DRY CREEK RD. SAN JOSE, CA 95125
- 문의 : 청빙위원회 정천의 장로 (Tel 408-262-0177)
-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Silicon Valley Presbyterian Church
www.svkpc.org

“임신 하청” 아닌 “축복 나눔” 으로

(1면에서 계속)

하지만 양측의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대리모 임신 산업의 확산에 따른 가능성과 문제점에 좀 더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시급히 원한다.

보조 생식술을 연구하는 바이올라 대학교의 윤리학자 스캇 레이는 교회가 대개 이 문제에 침묵해왔다고 말한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리모 임신 문제를 목회자와 상의하려는 부부들은 이미 체외수정을 시도한 경우가 많아서, 예방조목회자가 배아 생성에 반대했다더라도 그는 이미 생성된 배아에 대해 재고해볼 수밖에 없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대리모 역할에 관심 있는 여성들에게 준비된 답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연은 제각각일 것이다.

트리니티 국제대학교 ‘생명윤리와인간존엄성센터’의 페이지 콕스톡 커닝햄 디렉터는 이렇게 말한다. “목회자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지만, 사람들은 목회자에게 윤리 전문가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 일부는 주일예배 설교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공화당원이자 낙태 반대 침례교도인 전 애리조나 주 하원의원 트렌트는 여성 보좌관에 불임인 자기 부부를 위해 대리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 소식은 대리모 임신이 윤리적 대안이 될 수 있

는지를 두고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토론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낙태 반대 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보기 드문 경우였다.

한편 사회복지 학위가 있는 왓우드는 대리모 임신 과정이 자신이 임신한 아이들의 엄마에게는 즐거우면서도 괴로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년간 큰돈 들여 온갖 시술을 받은 끝에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됐다. 입덧을 하거나 임부복을 입지도 않고, 첫 태동을 느끼거나 진통을 겪는 일은 없지만 말이다.

왓우드는 자신이 이런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을 위한 큰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가장 최근에 자신이 대리모가 되어준 아이의 엄마가 분만실에서 눈물을 보이자 왓우드는 이렇게 말해주었다. “거의 다 됐어요. 당신이 지난 4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이 아이를 이제 곧 만날 테니까요. 오늘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라하신 모든 거절에 감사하게 될 거예요.”

대리모 임신에 따른 정서적, 신체적, 영적 부담은 대리모 임신 계약서에 기록된 내용을 초월한다. 왓우드는 자신의 아이보다 대리모 임신한 아이를 훨씬 더 많이 걱정해서, 약과 카페인을 비롯해 건강한 출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많은 위험 요소를 삼갔다고 말한다.

왓우드의 친구이자 또 다른 대리모인 멜리사 오헤어도 왓우드와 동

시에 출산을 위해 임원했다. 오헤어도 똑같은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제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평안을 느껴서 참 기뻐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왓우드와 오헤어는 “서로게이트 솔루션스”라는 대리모 모집 에이전시와 일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대개 건강한 20-30대 여성으로, 자신의 자녀가 1명 이상이고 재정 상태도 튼튼해야 한다. 담배를 피거나 약물이나 항우울제를 복용하지 않고, 심리검사와 통과해야 한다. 또한 대리모 임신이 합법인 지역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뉴저지 주는 미국 최초로 법정에서 대리모 임신 사건을 다룬 이후로, 대리모 임신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주로 알려져 있다. 1986년 “신생아 엠” 사건에서 대리모(이자 유전적 어머니)가 양육권을 주장하자, 예비 부모도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워싱턴과 인디애나 주처럼 뉴저지 주도 상업적 대리모 임신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뉴욕, 애리조나, 미시건 주는 대리모 임신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금지한다. 규제하는 지역에서는 대리모 임신 제도가 “대중에게 해롭다”거나 “공공정책에 반한다”고 여기는데, 일부 입법자들이 따르면 그런 합의가 결국엔 “신생아 매매”라는 불법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에서처럼 후호적인 법규들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상업적 대리모 임신에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법적 절차를 제공한다.

(16면으로 계속)

(1면에서 계속)

스프링의 감독이 만약 자신의 원래 계획만을 진행하려 하고 경기 중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그는 게임을 망치게 될 것과 같은 이치다.

융통성이 필요한 시간은 소그룹 모인 후의 다과시간에서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교재를 진행하는 시간보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는 다과시간이 더 큰 역사를 발휘한다. 이 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특정한 구성원에게 말을 걸어보라는 강한 느낌을 주시기도 한다.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을 굳게 지키라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맡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혼자 조용

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셨다.

찰스 흄멜은 “긴급한 일의 폭정”이라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루 전에 미리 계획해 따로 떼어 놓으라고 말하며, “나는 내일 점심에, 또는 오후 5시30분에 하나님을 만날(기도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라고 권면한다.

긴급한 일이 그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소그룹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리더를 보고 소그룹원들은 존경을 보내게 된다.

기법보다 기도를 배우라

소그룹 리더는 자신의 기법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나 기법과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면 기도를 먼저 선택한다. 소그룹을 위한 계획, 기

법, 성실한 준비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그룹 리더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오직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만약 누군가에 대한 문제로 갈등한다면, 7일 기도를 추천한다. 7일간 매일 5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매일의 기도가 소그룹의 관계를 세워갈 것이다.

요약하자면, 소그룹 시작전 30분은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사전에 마쳐야 한다. 매일의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소그룹 구성원에게 적용할 기술보다 그를 위한 짧은 기도를 더 우선시 한다. 이것이 한해 사역을 앞둔 소그룹 리더와 함께 확인할 사항이다.



시론

하나님의 비전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스스로 하늘에 존재하시던 분이며, 하나님 자신 이외의 모든 존재 이를테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천상적인 것이나 천하적인 것이나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형이하학적인 것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까?

이러한 모든 존재의 기원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상가들과 지혜자들이 그 해답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상상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그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비밀을 알려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무오한 책으로서 이 성경만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유일무이한 책일 뿐이다.

특히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과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준다. 그 내용을 분석해 보고 또 이와 관련된 성경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다. 즉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시된 하늘의 성전과 하늘의 나라를 이 피조세계와 결합시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성전/궁궐과 나라로 확정하시어 하나님이 왕으로 군림하시고 통치하시며, 그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모든 피조물들의 칭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고 언약의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성취할 사명(mission)을 가지신 선교사(the missionary)이시고 우리 각 인간은 그의 사명을 성취하는 한 선교사(a missionary)일 뿐이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으며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 처한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본질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스스로 긴 구속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은총을 베풀어 이 타락한 인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 결국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이 언약을 영원토록 성취하시고 이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영생과 영광의 시대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승천하시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되 다시 세상에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날까지 그를 믿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날까지 그들에게 창조시의 언약을 계승하고 성취해 가면서 이 땅에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그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스럽게 해 갈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이 명령을 각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며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비전이며 사명이며 그 삶인 것이다. 우리들의 모든 직업은 비록 다양하지만, 그 직업의 각각은 이 사명을 성취하는 한 수단 내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각자의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삶의 수단인 물질이 부어지고, 책임의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지위의 고하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부의 많고 적음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동등하며 동일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각자의 기능이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이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비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신분과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가? 교회 안팎에서 계급사회를 만들어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수단으로서의 재물과 지위를 이용하여 향락을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스스로를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 올려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른 영달을 꿈꾸며, 동료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을 능멸하고 이용하며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날 이러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들의 신분과 책임을 망각하므로 우리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 손상되고, 세상이 더욱 타락해 감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한다.

우리들의 지위와 책임이 교회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 사회 및 국가 안에서 무엇이든 간에 우리들은 다시 한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 각자의 본분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매일 매일 경건하고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밝히는 등불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자.

“새롭게 선포되는 21세기의 천로역정”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 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지은이 김성국



저자 김성국 목사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유독 더 알차게 48시간처럼 살아간다. 예수보다 중요한 것은 없고, 복음보다 긴급한 것은 없어 보인다.

이른 새벽 누구보다 일찍 하루를 열고 기도와 묵상과 심방과 설교준비까지 빈틈없는 일과가 일상화된 후엔 끝지만 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꿈 앞에 설레이 한다.

여러 언어의 민족이 각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연합으로 서로를 섬기는 다민족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성도와 함께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를 즐겨 찬양하며, '어머니'란 말 앞에 늘 눈시울이 붉어진다.

때론 어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때론 선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으로, 때론 '복음 앞에 오직 승리' 하는 전략가의 지필함으로 그의 일상은 영성을 노래한다.

-편집자 주 -

- 권장장로교회 담임목사
- 동부개혁교회 신학교 학장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사장
- 단비 TV 이사
- (전) 해전대학교 교무실장
- (전) 해전대학교 교수 및 교육실장
- 총신대학교 (BA)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iv)
- 고든벨 신학대학원 (Th.M)
- 고든벨 신학대학원 (D.Min)

히즈핑거 (His Finger)

책에 대한 문의로는 히즈핑거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필리핀 선교사 학교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셨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연로하신 선교사

부모님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차매 환자이신 90세 어머니를 돌보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에 잠

시 쉬러 오셨을 때 만나 뵈었습니다. 쉬운 말뿐이고 딸의 산후조리를 돕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태어난 손주를 보는 기쁨과 딸의 가정을 돕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을 돕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무리 엄마라도 딸의 집에서는 딸의 조수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딸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선교사님은 그저 아내 앞에서 양파 까려면 양파 까고, 쓰레기 버리려면 쓰레기를 내어다 버리는, 조수의 조수가 되었다며 웃으십니다. 선교사님은 은퇴해야 될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요?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

기도 힘든 세상에 왜 다른 선교사님들의 부모들을 돌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실까요? 선교사역을 핑계 삼아 다른 형제에게 어머니를 떠맡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차매 어머니를 직접 모실까요? 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딸을 돕는 일을, 눈치까지 보아가며 무보수로 일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돌봅니다. 사랑하기에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와달라는 요청도 없지만, 오히려 눈치까지 보며 섬겨야 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섬기는 마음이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

현하심으로 참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반복되는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도 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직장 상사, 반항하는 자녀, 잔소리만 하는 엄마, 정죄의 화살을 쏘는 사람들을...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라는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것과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깨달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용서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발렌타인 데이(Valentine Day)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발렌타인데이를 보내셨나요? 초콜릿과 장미를 주고받은 사랑이 있었나요? 이 세상에는 기념해야 할 많은 사랑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은 우리가 닮고 싶은 예수님이십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기념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기념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됩시다.

푸/른/초/장

고택원 목사
(새한장로교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그 말만 들어도 가슴에 찡함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는 단어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까?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고 가슴 벅찬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일을 수 없는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어머니 하고 불러보게 됩니다. '고향'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릴 적에 뛰어놀던 고향의 풍경이 떠오르면서 그리움이 사무쳐 옵니다. 지금은 찾아가도 낯선 타향처럼 변해버린 고향이지만 어릴 적 뉘뉘던 고향에 대한 향수는 잊혀 지지 않습니다. 전에 독일에서 녹화한 가요무대를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가수들이 나와서 고향을 소재로 한 노래들을 부르는데 방청객들은 모두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평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향은 그렇게 애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조국의 해방을 갈망하며 눈을 감았는지요. 가난한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보리 고개를 넘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나라. 일제의 압박, 6.25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전 국민이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구해낸 위

대한 지도자였으며 경제발전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을 지독한 가난에서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1위인 것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생산, 선박 건조율, 제철 조강 생산량, 스마트폰, 인터넷 보급률, LCD Led TV, 지하철, 국제공항, 여자 골프, 교육열, 쇼트트랙 양궁 바둑 등등...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신생국(新生國) 중 유일하게 발전하여 경제대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전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도 암울한 소식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3월 1일은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입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은 종로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그리고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두 일본 경찰에 체포당하고 재판에 넘겨져서 몇 년씩 형을 살았습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집회참석자가 106만여 명이고, 그 중 사망자가 7,509명, 구속

나라 모두 빠르게 성장하는 젊고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력이 세계 10강 안에 드는 나라로 프랑스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미국과는 어느 나라 미래가 더 밝은가를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로 갔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르헨티나와 미국 중 어느 나라를 이민을 갈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일인당 GDP는 1만4000달러로 세계 60위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경쟁하던 미국은 6만2000달러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난 것일까요? 어느 전문가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포퓰리즘이란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로 대중주의

의 말대로 했으면 다윗은 꾀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암살범은 후세에게도 들어보자고 했고 암살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낫다고 하며 후세의 모략을 채택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멸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대답할 때 했던 짧은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히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하자

(느헤미야 1장 1-11절)

또 하나 '조국'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고향을 떠나 본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향이나 조국이란 단어는 그리 큰 감동을 주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조국은 영원한 로망이요 그리움입니다. 일제치하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에게 조국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일본에 살다가 관동 대지진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귀국한 시인 이상화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노래했습니다. 국토는 일시적으로 빼앗겼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봄은 빼앗길 수 없다는 몸부림, 즉 피압박 민족의 비애와 일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팟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흙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겼네." 그가 26세때 개벽지에 발표한 시입니다. 시인은 그렇게 바라던 조국이 해방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4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니는 예루살렘이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슬피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픔 속에 지냈습니다. 그는 급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먼저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독고 기도했습니다. 현재 들려오는 조국의 소식은 우리를 너무도 암담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조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진국을 지나 선진화에 확실하게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포르투갈 체코 등 많은 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하려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중진국까지는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에 들어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90년대에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에 살던 농민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북미에 있는 미국으로 갈까? 아니면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로 갈까? 당시 두

민중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망가져 급증한 도산과 실업을 '피주 기식' 복지정책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치와 경제를 고치려 않고 무상교육·무상으로 등을 약속하며 노동자와 빈민들의 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국가재정이 파탄 나고 국가부도 때문에 수차례 IMF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내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남미의 베네수엘라 역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국가재정이 파탄 난 상태입니다. 국가적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뜻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그랬고 한국이 복지 포퓰리즘의 뜻에 걸려 있습니다. 한국의 복지 포퓰리즘은 與野(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도 여당과 야당이 합세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근로의욕이 상실(喪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聖經)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 하지 않는 자에게 마구 퍼주고 있습니다. 북한에 퍼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 자만 바보가 됩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무상복지'라고 합니다. 무상복지라는 나라가 망해가는 길입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스

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리라는 계획을 갖고 왕의 허락을 받아 조국에 갑니다. 그리고 술한 방해를 물리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조국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것이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에 오늘 저렇게 발전한 것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은 아들 암살범의 반란으로 울며 맨발로 피난을 가는 길에 아히도벨이 암살범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 때 그는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막힌 모략을 암살범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암살범이 아히도벨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기도만큼 값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조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상시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인 한국은 비상시입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어떻게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일의 결정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제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국가지도자들의 지혜와 통치력을 위해, 국민들의 깨어있음을 위해, 한국 교회의 자성을 위해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조국 한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사 지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조국 한국이 위기를 벗어나 다시금 힘차게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aekwonkoh@hotmail.com

신년 초 성도들의 기도제목들 정리하여 매 기도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 두 달여 기도하면서 어느 날 새벽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전한 뒤, 돌아서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초대교회 당시의 힘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위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를 방금 설교했는데, 금세 뒤돌아서서 너는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는 음성이었다. 방금 전한 말씀과 너무 충돌되듯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이었다.

참 그리스도인의 소망

사막광야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서 성도들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범사에 형통케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된

영원한 참 소망

돈 벌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것도 소망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누리는 복이란 것은 모두가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새 차를 사고 즐거워한다. 그러나 10년만 지나도 말씀대로 외장과 내장이 썩어 들어가 폐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새 집을 사서 누워보면 좋고 안락함을 얻는다. 그러나 곧 익숙함으로 인해 효용의 가치는 감소되지 않던가? 베드로의 말과 같이 모든 것이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죽도록 고생하고 산다는 이민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어야 영원한 참 소망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인가? 저들을 위해 무엇을 빌고 바래야 할 것인가?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소망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

쌓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독교의 거대한 물결의 힘이 온갖 엄청난 일들을 다 해 낼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저들이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대한 탄식이 떠나지 않음을 보게 된다.

절대적인 회복의 회개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의 결모양은 화려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황폐해질 것이다. 단순히 선하고 좋은 어떤 것의 첨가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완전한 구속을 통한 전인적인 회복과 그로 인한 참된 자유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세상 죄에 대한 매입과 죄악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속박되었던 삶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바람을 피웠기에 받은 마음의 상처가 커서 아직도 그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와서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게 되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상처 회복의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리토스에서 제니

A: 인생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기며 살다보면 가끔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웬만한 것은 인간의 지성의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쉽게 넘어가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 잊혀 지지 않는 상처가 문제입니다. 상처가 오래 가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깊은 상처가 되고 나중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처럼 마음의 쓴뿌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상처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상처난 감정을 말합니다. 상처는 내면에 받는 것이기에 일차적으로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거절감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 자기방어,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교회를 목회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으로 숨은 상처 치유 받아

보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상처는 주로 3가지입니다. 거절감,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첫째가 거절감(Rejection)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거절당한 것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 이혼 당했거나 직장에서 무능하다고 잘리거나 남편과 같이 살긴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지만 옛날에는 아들만 선호했습니다. 아들을 기대하고 있던 집안에서 딸로 태어나 출생 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은 자라면서 엄청난 거절감의 상처로 내면에 남아 있게 됩니다. 자매님도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거절감의 상처가 컸을 줄 압니다. 상한 감정이 안으로 들어가 쌓이면 우울증이 되고 밖으로 나오면 분노가 됩니다. 숨은 상처가 쉽게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 오셔서 교회를 나가신다니 다행입니다. 치유의 길은 오직 한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사람은 나를 거절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진정한 사랑의 아버지를 경험하는 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니 죄와 상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세상을 향한 참 소망

-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것

참 소망이란 무엇인가? 저들의 형편은 철저한 약자의 입장과 형편이었다. 고아와 과부와 약자로 상징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었는데, 저들에게 베드로가 간절하게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날 이민자로 대표되는 삶의 척박함이 느껴지는 이들에게 과연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본다.

베드로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생존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도록 구하며 기도하도록 강권하는 것을 본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들을 향해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하고 듣기를 원하지만 저들의 원함과 다른 말씀을 선포한다. '너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도록 구하라'며 선포하는 것이다.

는 참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설교의 제목이 되고, 저들은 순종하여 그 말씀이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약자를 넘어선 기독교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 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본다.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다니엘과 같이 깨어 근신하며 조국을 향해 더욱 간절한 기도의 울림을 가지게 된다. 총리도 교인이고 국회의원의 3분의 1도 교인이고, 도지사와 장관들의 다수가 교인임을 본다. 기독교가 늘 사회적 약자였는데, 이젠 주류 강자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힘도 가지고 있다. 대형교회들이 가지는 그 힘이 엄청난 것을 목도한다. 그러나 기독교로 통칭되는 이들이 가진 그 많은 강한 힘만큼 또한 더욱 크게 탄식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된다.

거대한 정치 집단이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온갖 힘과 모략으로 일들을 밀어부침으로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을

이다. 이러한 회복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가능한 유일한 회복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회복과 자유는, 주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매인 바 되고 구속되어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옆드려져야 한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한다. 기도도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회개만이 회복의 길이다.

세상에 초점 맞춘 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25</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046</p>	<p>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 애 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영, 위,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형찬양부: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p> <p>Tel. (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9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8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el. (804)560-7500, www.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4 ■ N.Y.: Tel. (718)886-4000 Fax. (718)886-0000</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의 푸노이(PHUNOI)



푸노이족은 태국 북부 지방에 거주하는 티벳-버마계 종족이다. 푸노이족이 태국내 거주지를 확실히 할 수 없는 비수(Bisu), 피엔(Pyen), 므피(Mpi)족과 매우 가깝다는 사실 외에 이들에 대해 알려진 바가 매우 적다. 푸노이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부족해서 이 내용은 푸노이족이 거주하는 지역과 주위 타이족의 영

향을 기초해 작성됐다. 푸노이족은 로로 언어군에 속한다. 로로 언어군의 기원은 중국의 북서부 지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8-9세기에는 중국 남부를 지배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9세기 초에는 동남아시아를 침입하고자 원정길에 오르기도 했으며, 후에 몬(Mon)족에게 정복당했다. 대부분의 푸노이족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종족 이름과 같이 푸노이어라고 한다. 푸노이어는 시노-티벳 언어군에 속한다. 태국의 공식 언어는 푸노이어와는 많이 다른 중부 타이어이다. 많은 푸노이족 사람들이 중부

타이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 같다.

삶의 모습

푸노이족은 태국의 북부지역, 주도인 치앙마이에서 동쪽 지역에 거주한다.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유사한 생활양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많은 부족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토지에 소금기가 많아 농업생산량이 적은 편이다. 동북부 태국은 가뭄으로 자주 고생하는 지역이며, 이 지역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도시의 산업인력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공장노동자로 직업을 갖게 됐다.

푸노이 사회는 연령, 직업, 부, 거주에 따라 위계적으로 조직돼있는 사회다. 시골 농부는 장인, 상인, 시 공무원 아래

지위를 갖는다. 성직자들은 별도의 집단을 형성한다.

사회의 기본단위는 가족이다. 한 지붕 아래 직계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각 세대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대한다. 가족들은 함께 생활하고, 먹고, 함께 일한다. 때때로 신혼 부부가 자신들의 독립적인 집을 구할 때까지 신부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다.

신앙

푸노이족은 "전통민족종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전통민족종교는 일반적으로 복합적인데, 가장 흔하기는 "정령신앙(animism)"과 "조상숭배"가 혼합된 형태다. 정령신앙은 자연의 여러 요소(바람, 강, 나무, 땅 등)들이 영이나 초자연적 존재와 연결돼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삶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해 이런 영들에게

예배하거나 영들과 상의하는 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안정적인 양식, 질병 치료, 위험에서 피하는 것 등과 같은 삶의 다급하고 실질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영들을 찾는다. 이러한 영들은 지역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지역신들이 진심으로 숭배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물과 의식을 통해 간구하는 이의 유익을 위해 아마도 교묘하게 조종된다고 할 수 있겠다.

조상숭배는 죽은 조상의 영이 살아있고 자손들이 이 조상의 영을 먹이고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신화적 지도자의 죽은 영혼이 사회 전체의 일, 예를 들자면 비, 농작물 재배, 가족이 건강히 자라는 것 등에 대해 힘을 갖는다고 믿는다. 반면, 가족이 나 씨족의 지도자였던 조상의

영혼은 특정 가족에게 직접적인 일에 대해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영혼들이 생존하는 그들의 자손들을 잘 도와준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일정한 행사를 통하여 제사와 의식을 행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해 조상의 영혼을 달래고자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푸노이족은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 농촌 지역에서는 간염과 말라리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마도 기독교인 의사와 간호사들이 푸노이족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푸노이족의 영적 필요도 또한 매우 크다. 현재 그들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나 기독교 문서자료들이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북미회담 코앞...재선기도 트럼프의 '하노이 승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하노이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의 두 번째 핵 담판에 나선다. 북미 정상 간 첫 대화로, '세기의 담판'으로 불린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8개월 만이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재집권 플랜 가운데 이미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그 차례로 1차 때에 못지않게 정치적 명운이 걸린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를 두고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 도박'이라고 표현해 왔다.

1차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미 행정부 내에서조차 고개를 드는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북핵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결사', '거래의 달인'을 자임, 자신만이 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다며 또 한 번 승부를 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번 두 번째 '톱다운 담판'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견인, 지도자 대 지도자 간 '통 큰 결단'을 주고받는 '빅딜'을 성사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서게 됐다.

적대국에서 동반자 관계로 탈바꿈한 베트남을 무대로 써내려갈 '하노이 선언'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합의 조항별 구체적 이행 조치들을 담아내는 데 성공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또 다시 큰 굽이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언론과 조야에서 자신의 대북 성과에 제대로 점수를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이번 2차 회담에 대해서도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며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좋은 관계'를 과시하며 '친서 외교' 등을 통해 직접 소통의 끈을 이어가는 등 '남다른 케미'를 과시해왔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어떤 '협상 패키지'를 풀어 놓을지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프로세스'의 전체 로드맵 속에서 김 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카드들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북한이 '1순위'로 원하는 제재완화를 비롯, 종전선언과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등을 골자로 하는 체제안전 보장, 경제발전 지원을 통한 '밝은 미래 보장' 방안 등이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놓을 수 있는 대표적 상응 조치들로 꼽힌다.

법정으로 간 '국가비상사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16개 주가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도 줄줄이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이날 16개 주가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위해 의회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위헌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비상사태 선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 미 연방 50개 주 가운데 3분의 1이 참여했다. 메릴랜드주(공화)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 당선된 곳으로, 주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이들 부처의 고위관리들로 돼 있다.

원고로 나선 16개 주의 검찰총장은 56쪽 분량의 소장에서 "대통령의 행동은 불법적"이라며 "미국 헌법에 새겨진 권력분립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자유훈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울 만큼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란 것을 증명한다"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불법 입국 건수가 거의 45년 만에 최저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과 환경 등 각종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WP는 이 법원에 트럼프 행정명령 9건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민간 차원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텍사스의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시티즌, 생물 다양성센터, 야생동물보호단체 등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국시민자유연합 등 수십개의 시민단체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위헌소송 추진과 함께 연방의회 차원의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은 상·하원 공동으로 결의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우선 국가비상사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선 4~10명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의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미 관련 청문회를 요구하고 적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의회가 국가비상사태 무효화 결의안을 추진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관련 줄소송에 대해 낙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법성 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수밖에 없는 데,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이 공화당 대통령들이 임명한 보수 성향이기 때문이다.

'교황, 아동 성학대 '무관용 방침' 행동으로 옮겨'

사제에 의한 아동 성학대 문제로 가톨릭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오는 21-24일 바티칸에서 열릴 예정인 교황청의 관련 회의를 앞두고, 피해자



단체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아동 성 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제에 의한 성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사제 성학대 그만(ECA)'은 18일 바티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이래 아동 성 학대에 대한 무관용을 천명해 왔다"며 "이제 그 약속을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아동 성 학대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그동안 성 추문에 연루된 사제를 처벌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지적을 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단체의 창립 회원인 피터 이셀리는 "'무관용' 정책이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제들뿐 아니라 그들의 죄를 은폐한 주교나 추기경들로부터 역시 성직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직접 아동 성 학대를 저지른 사제들은 물론 이들의 죄를 감추고, 눈감아 준 고위 성직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아이들을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작년에 미국을 비롯해 칠레, 호주, 독일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성직자들이 과거에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 학대 행위가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자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각국 가톨릭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주교회의 의장들이 모이는 주요 아동 성 학대 예방 회의를 소집했다.

114개국 주교회의 의장과 수녀회 대표 등 약 190명의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톨릭교회를 좀먹고 있는 아동 성 학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회의는 21일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라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연설을 끝으로 폐막한다.

교실서 '국기맹세' 거부 11세 소년 체포

미국의 중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하는 교사와 논쟁을 벌이던 쿠바 출신 11세 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의 로턴차일스 미술 아카데미 6학년예 재학 중인 한 쿠바 학생은 지난 4일 국기에 대한 맹세(Pledge of Allegiance) 시간에 기립을 거부했다. 학급 보조교사가 나무라자 이 학생은 미국 국기가 인종차별적이라며 대들었다.

교사는 "그게 그렇게 나쁘다면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말했고 학생도 "난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되받았다. 교사는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교무실에 연락했다. 학교 행정관과 교직원이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으나 학생은 거부했다. 교사는 이 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학생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결국 학생은 교내 지원 경찰관에 의해 연행됐다.

미국 대법원은 1943년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국기에 경례하거나 서약을 낭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학교 대변인은 "학교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를 암송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면서 "보조교사가 그런 정책을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국기에 대한 맹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국기가 국가 정책과 인종 차별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미국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은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기 전 국민의례 시간에 기립 대신 무릎을 꿇는 시위를 벌였다. 다수의 프로풋볼 선수들이 캐퍼닉의 시위에 동참하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도 앞장서서 캐퍼닉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시위 이후 모든 프로풋볼팀과의 계약이 불발된 캐퍼닉은 NFL과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미의회, 올해도 北 재정지원 금지...

미국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했다.



19일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방송예산은 방송 시간을 직접 회계연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탈북민 지원의 경우 탈북민 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지출법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했다. 아울러 북한과 협력하는 이집트와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의 국가 원조도 금지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금은 국제 대북제재를 이행했다는 판단 아래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14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고 이틀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국경장벽 예산 요구가 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인도 정부출범 후 힌두교도 종교폭력 급증

인도에서 이슬람교도 등 소수 종교집단이 종교적 이유로 살해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공개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를 인용해 18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2014년 집권한 이후 이른바 '암소 자경단'에 의한 폭력이 급증했다. 암소 자경단은 암소를 신성시하는 보수 힌두교도들이 소속된 조직이다. 이들은 소 도축 등을 감시하며 때로는 소 운송자조차 공격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는 등 과격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우타르프라데시 주(州)에서는 소의 사체를 발견하고 흥분한 힌두교도들이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경찰 초소와 차량을 불태웠다.

보고서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적어도 44명 이상이 이 같은 폭력에 희생돼 숨졌으며 사망자의 대부분은 무슬림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힌두교도들은 희생자의 시신을 나무에 걸어두거나 심지어 불태우기까지 했다 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7. 최능익(1889-1976)

최능익은 1889년 11월 24일에 평안남도 강서군 성태면 현곡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교회사역에 많은 경력이 있었고 일반 사회에 열심이 많은 인사였다. 1916년 1월 그는 27세의 나이로 조국의 독립과 항일투쟁을 목적으로 도미한다.

건축비 의원 모금은 위의 세 명이 담당했다. 김경보가 광이 25척에 장이 100척인 플로리다 거리의 땅과 식수를 10년간 한정하여 기부했으므로 600달러의 건축비로 100명이 앉을 큰 예배당을 지을 예산으로 300달러가 모금되었던 공사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맨티카에서 총 240달러를 모금하였고 최능익이 그해 12월 16일에 상항 한인 예배당을 방문하여 75달러를 모금하여 총 315달러가 되자 1918년 2월 15일에 휴일이 될 거행할 예정이었다.

최능익이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퇴원한 때가 1918

때 교회를 목회했다.

시카고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19년 4월 21일에 국민회 시카고 지방회의 신형모 회장이 사면함에 따라 최능익이 회장직을 이었으므로 최능익이 그 이전에 시카고로 이주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시카고에 한인동포가 7, 80명에 달하였는데 영영상 골목로 인하여 교회를 설립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던 중 그곳 재류 동포가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해 6월 11일 미국 북 감리교 내지 선교 이사회는 한인 개척교회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해 8월 30일에 미국 북감리교감리회 감리사 태틀 박사가 거당예식을 거행하고 최능익에게 전도를 주장하게 하였다. 많이는 80명까지 모였고 적게는 35명이 모였다. 그는 예배 인도 외에 심방을 하였을 것이다.

최능익이 1919년 10월 3일에 국민회 시카고지방회 회장직을 사면하였고 부회장 강영승이 되었으니 그가 이때까지 전도사직을 이여가다면 약 4개월의 사역이 되고, 이후 몇 개월 더 교회 사역을 하였을 수도 있다.

1919년 3월 1일 평안남도 강서군 사천사에서 독립시위운동을 진행할 때 애적과 의 충돌로 독립군 수

동포들은 오직 그 가슴속에 피로써 단장하고 눈물과 죽음으로써 지날 터이다. 여러분 저 총의단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 죽는 사람과 죽을 사람을 위하여 저 총의단이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박장) 나는 사관 학생 중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혹 이렇게 생각하실까 합니다. 저 사람들이 태평양 이편에서 군술을 수련하니 위급지 추에 어찌 적용할까 합니다.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노백린 각가가 우리 독립전쟁의 선봉장인 줄 아시거든 우리도 제때 죽을 놈들이 줄로 인정하여 주시오. 나는 몇 날 전까지 교회일 보던 자이올시다. 동족의 속죄 구령에 힘을 다하는 일이나 총과 칼을 배우는 일이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총의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동포의 원조를 믿고 나선 사람이 아니고 우리 손으로 벌여 먹어가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우리 독립 사업에는 죽는 일이 도리어 쉽습니다. 시간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1918년

27세에 조국 독립과 항일투쟁 목적으로 도미 1918년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사역 시카고 오가며 국민회 등 활동...1995년 애국장 받아

최능익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전도사

1917년 3월에 감독 램버트 목사가 북가주 한인 미국남감리교 지방연회를 소집하였을 때 최능익은 한치홍과 함께 맨티카 한인감리교회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날 임정구 전도사가 순회 목사로 맨티카 한인감리교회에 파송되었고, 본 교회 전도사로 최능익을 임명하였다.

그해 4월 맨티카 노동소는 반장했다. 한인의 경영하는 각 농원은 그동안 약간의 풍채를 받았으나 장래의 희망이 없지 않았다. 김원택의 노동소는 150여 명이 모였는데 그가 온 때 한인이 43명이었고 노동은 5월 그믐까지 계속되었다.

최능익의 사역 중 급진부는 예배당 건축이었다. 이에 건축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회계에 김원택과 김필권이었고 수전위원회에 최능익이 선출되어

3월이었는데, 그해 4월에 건축공사가 끝날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총공사비가 예상 금액의 두 배인 1,200달러가 필요했고, 이 중 900달러가 모금되고 300달러를 채우어야 그해 9월 22일에 예배당 헌당식을 거행했다. 김원택이 보고한 맨티카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연조 보고서에 따르면 익은 목사와 다른 2명의 서양인도 있었다.

1918년 10월 10일 오후 3시에 감독 푸부스 목사가 북가주 한인남감리교회 지방연회를 상항 피취저널 예배당에서 소집했다. 이날 최능익은 맨티카 한인감리교회의 전도사로 재선임을 받았고, 한치홍이 새로 본 교회의 전도사로 파송했다. 당시 임정구 전도사는 오클랜드, 스타튼, 새크라멘토, 윌로우스, 맨티카를 순회 목회를 하였고, 최능익은 한치홍과 함께 그의 지도하에 있었다. 최능익은 한치홍과 함께 북가주 순회 목사였던 임 전도사가 맨티카를 방문하지 않을

심 명이 살상되고 순사 3명이 즉살되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 강서군은 그의 고향이었다. 그해 10월 4일에 최능익의 동생 최능진이 신한민보에 기고한 한국에서 온 편지를 따르던 삼일운동으로 최능익의 친족은 중역에 처했고 가산은 몰수당했다. 유학생이었던 최능진은 그 후 평양 숭실 전문대의 운동 교수로 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최능익은 1920년에 노백린 등이 중국 내 항일독립운동을 후원할 목적으로 북가주 윌로우스에 설립한 비행사양성소에 입소한다. 그해 3월 12일에 신한민보에 아래의 전술이 필요하오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이 글에서 그가 속죄 구령의 교회 전도사에서 민족독립의 사관학생으로 변신하게 된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는 찬란한 식당 안에 앉아서 마음대로 기운대로 뛰놀고 기뻐합니다. 오를을 당한 우리 내지

이 망속하여 결론치 못하나이다.” 최능익은 북가주 윌로우스 지방 대학에 입학했고, 1920년 4월에는 윌로우스 지방 대표로 상항에서 개최한 학생총회 결성대회에도 참가하였다.

다뉴바, 나성 그리고 시카고
재정문제로 윌로우스 비행사양성소가 문을 닫음으로 최능익은 중가주 다뉴바로 이주하였는데 1922년에 한국에 있던 아내가 별세하였다는 부음을 받고 큰 고통에 처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주일학교 교장으로 사병순 목사의 다뉴바 한인장로교회를 섬겼다. 주일학교 학생 수는 3, 40명이고, 송대지가 7세 이하 2세 이상의 유치반의 20여 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나성으로 이주한 이듬해인 1924년에 최능익은 한승근 목사의 주례로 김연실과 약혼하였고 그 이듬해 나성 한인감리교회에서 결혼하였다. 약혼 주례를 한 한 목사의 나성한인예수교회에서 1927년 5월에 황성택과 함께

그가 본 교회의 웨스트 37가 길 1548번지의 예배당 건물 관리인으로 활동했다.

출석 교인이 5, 60명에 달해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나성 사우스 버드롬 예배당 3573번지로 예배당을 옮기면서 친목회를 계획하고 그가 김혜원 등과 나성한인예수교회 상설 사교위원이 되어 친목회 광고를 냈다. 한 목사가 시카고로 전임하던 그해 12월 그는 교회 유지발전을 위한 12명 위원회와 교회 제반 사무 처리와 발전책 진행을 위한 7인 임원회에서 활동했다.

1928년 7월에 만국주일학교 한국 대표들이 나성을 방문했을 때, 연합 환영대회 준비회를 조직할 때 나성한인예수교회의 최능익이 만찬회 위원과 순서제명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그해 8월 나성한인예수교회의 간사직에서 면직되고 김창만이 보임된다.

1931년 1월에 황사용 목사의 나성한인감리교회의 버드롬 예배당에서 미국 남감리교 감리사 데이비스 목사가 소집한 본 교회의 계삭회에서 최능익은 평신도대표로 선임되었고, 그해 10월에 큰 예배당을 빌렸는데 한 인사회의 집회 편의를 위한 예배당관리자로 그가 보임되더니 이듬해에는 본 교회 재무를 맡았고, 1932년 9월에는 7인 교회 임원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고, 1934년에는 서기로 활동했다.

1934년 5월 최능익은 시카고로 다시 이주한다. 그해 7월에 시카고 한인감리교회의 이사로 선정되었고 그해 10월 이사회 재부가 되었다. 당시 본 교회 목사는 노스웨스턴대학교의 철학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던 조승학 전도사였는데 그의 사임으로 최능익은 목사 청빙위원으로 선정되었다.

1937년경 최능익은 다시 나성으로 이주하고 황사용 목사가 시무하던 나성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한다. 그해 나성 삼일국어학교 교사로 자청하였는데 그해 웨스트 36 플라스 1446번지로 이전한 교회는 그를 권사와 유사와 서기로 임명하였고, 그해 12월 성탄절 축하준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1938년에 그는 15,000달러의 본 교회 예배당 건축 예산위원과 국문 서기로 선정되었고 이듬해에는 권사, 서기, 예배당건축위원 그리고 찬양대 위원이 되었다.

최능익은 1976년 12월 21일에 향년 8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국민회, 나성공동회, 중국 피난민후원회,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 조선의용대, 조선민족혁명당 미주지부 그리고 재미 한족연합위원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에 관여한 그에게 한국 정부는 1995년에 애국장을 추서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10)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사,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독서(영-금): 오전 5:30 3월: 오전 11:00 토요일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전 1:20 영미권(영-토): 오전 5:45(월-토) 사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0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통 속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미)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수: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310)381-2202, www.mp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밀미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호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성경강좌(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egume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미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화)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기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정성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Tel: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미)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찬양) 새벽 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27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일성경침례: 오후 8:00 성경강좌(목요일) 오전 6: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원: 365일 24시간 온선 Tel: (714)446-6200, www.graceml.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 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강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미)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ln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장례주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310-370-5500, Fwww.tor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성경도 신앙 (72)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다)국가의 법에 대한 양심의 적용
그런데 본문에 “양심”이란 말을 통해 의도한 바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그 입법 조항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 진술에 제한 조건이 붙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국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간섭을 하게 되면 복종할 것인가?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 18-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낮게 한 일로 인해 체포되어 당국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복음을 설교하지 말라는 국가 관리의 말에 복종했는가?

5장에서 설교를 금한 후에도 설교하니 28절에 당국자들이 사도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도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반응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단서가 붙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 뜻을 버리거나 저버리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여 지키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이들에게 마땅히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행동원리이다.

사도들 시대로부터 몇몇 황제들은 자기를 신격화하여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가이사라 주시오” 하고 인사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냈고 정부는 모든 사람들로 복종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도 예배할 수 없소!”라고 반응하였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형과 화형을 당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 그들은 권세들과 정부들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했으니 오히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되, 하나님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해 결코 복종할 수 없다. 우리는 권세와 정부에 대한 복종에 있어 신앙 양심의 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항상 양심의 한계 내

에서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 “내 생각이 옳다 하는 바를 행하려 한다”고 말할 권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무정부주의이다. 사람이 자기 양심에 복종한다고 하면서 어떤 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라, 방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질서 있는 사회와 무법천지 사회의 차이를 알게 된다. 항상 자기 양심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옳고 바른 말이지만, 국가가 입법조항으로 만든 어떤 것도 엄두에 두지 않고 모든 점에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모두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롬14:7)”고 말씀한다. 우리 위

3)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국가에 대한 원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원리가 있다.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국가와 그 위에 있는 권세에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복종해야 한다. 그들이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위임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국가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사도행전 16장 19-40절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부와 관리들에 대해 얼마나 당당했는가! 자기 권리를 분명하게 주장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했다. 그 행동을 취함으로 빌립보 행정관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법을 이행하도록 세움 받은 자들임을 상기시켜 주었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8세기에 핏필드(G. Whitefield)와 웨슬리(John Wesley)는 노방설교와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당시에 지방 행정관과 지방 교구목사들이 그를 저지하려고 노력했다. 모임을 흩어버리려고 선동하고 어려움을 주었다. 그래서 핏필드와 웨슬리는 항상 법을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헌팅톤(Huntington) 백작

국가에 복종하되 신앙 양심의 소리가 더욱 중요, 그러나 무법은 잘못 보호받을 권리 있으나 큰 기대 말고 자신의 국가관 강요 말아야

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국가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지음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어떤 점들에서 우리 모두는 국가가 그 나라 백성들 대다수의 지혜를 모아 법을 제정하고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시키거나 예배의 자유의 필요성을 배격하면서 까지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역지를 부리며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란이 되는 큰 문제에 역지를 부리며 과격하게 나아가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만 할 뿐이다”라고 말하거나 동료 시민의 보편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일은 양심의 자유의 전체 개념을 남용하는 것이 된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정부나 법이나 질서를 믿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실례로 유럽 대륙의 재 침례파 중에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종교개혁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으로 만들 때까지 했다. 그 때문에 루터와 칼빈은 그들에 대해 매섭게 대항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전체 개념을 극단까지 몰고 가서 양심의 자유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부인에게 알리어 그녀는 그 전도활동을 법적으로 방해해 주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정부와 국가와 법과 질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심각한 불법과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법을 발동할 권리를 가지고 그 법의 이행과 실행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나 그 어떤 형태의 국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극단에 빠지곤 할 때마다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큰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교회가 권세자들 편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나라에 대해 최고로 충성하는 자들이지만, 때로 법이 허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만든다면 그런 관점에 대해 싸우고 죽음을 각오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의 국가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 19, 20세기에 들어와 그렇듯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자랑할 필요는 없다.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항상 많은 것을 기대한다. 국가에 대해 결코 흥분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에 대해서도 흥분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고 투표할 뿐만 아니라,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yoonsuklee@hot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말씀사랑으로 사명을 완주하라

이세벨과 드보라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며 참으로 주님을 알게 된 복을 더욱 실감합니다. 잘나고 강한 이세벨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힘든 세상에 태어났어도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아 주위 사람들을 조용히 세우더니만 급기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 한 뫼한 드보라! 드보라의 기도가 저의 노래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전혀 맹목인 저를 암흑에서 불러내시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48년간을 즐기치게 이런 저런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드보라 노래하는 진정한 기적의 하나님! 저의 생애가운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시어 말씀이 그러하듯 상고하는 극한 열심을 내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어찌할 바를 모르는 허다한 주님의 백성들을 내게 부치시고 저들의 어머니로 삼아 주셨습니다.

약하다 약한 저이기에 여러 바락을 내게 도움으로 주시고 말씀 들고 가는 곳마다 주께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주님의 승리를 목격하는 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동안 오직 주님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더욱 불일 듯 불이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는 상한 갈대가 굳굳이 서가는 이 역사를 끝까지 제대로 감당토록 온전히 잡아주소서! 주님께서 계속 강권해 주셔야 드보라와 같이 연약한 심령, 상한 심령들을 일으키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세우는 이 사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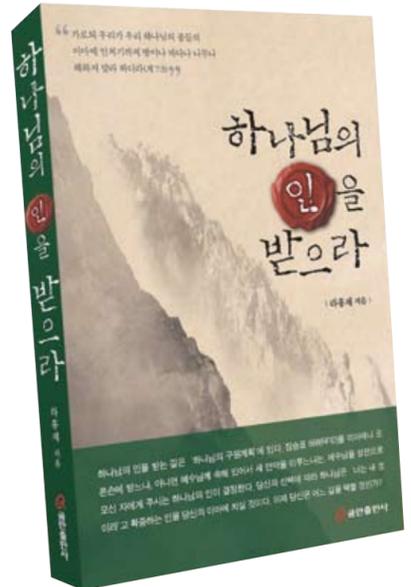
잘난 사람보다는 많은 평범한, 그러나 순수한 믿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이 모여들어 크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군사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계속 많은 바락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힘주고 격려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소서! 드보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많이 새기고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세우는 말씀 치유, 말씀 회복의 역사가 우선 내 안에 온전히 부흥케 성령의 기쁨을 철철 부으소서!

오늘도 저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의탁 드립니다. 지식과 지혜의 성령이시여! 온전한 주님의 마음과 뜻만이 날 통해 나가도록 사모합니다. 주여! 여종이 었디어 말씀의 기쁨 부으심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총명한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지성소에 온전히 임하소서! 평범할지라도 주님께 중심을 드린 드보라와 바락을 많이 일으켜 주시어 혼란한 이 시대를 말씀으로 이끄는 사명자로 사용해주소서! 아멘 아멘.
heenlee55@hanmail.ne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코이의 법칙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아주 특이한 물고기가 있다. 작은 어항에서는 5-8cm,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18-25cm로 자라는데 이 물고기가 강에서는 90-120cm까지 커진다고 한다. 같은 종자의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 수 십 배가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경이롭다.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이 있다. 나름의 발전이나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그 한계를 벗어난 삶을 만들어 냈을 때

추켜세우는 말이다. 개천은 코이의 어항과 같은데 더 크게 자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 강에서나 자랄 수 있는 크기로 자랐음을 인정하는 칭송이기도 하다. 이런 것들과 견주어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본다. '할 수 있다'는 긍정(肯定)의 말은 그 무엇보다 더 큰 박수일 것이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 내가 어떤 무대에 섰는데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우레와도 같은 박수를 받고 있다면 그 순간, 활력에너지는 극한으로 치솟을 것이다. 인생자체가 실패

한 것으로 판결된 금지산자(禁治産者)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오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마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감격에 겨워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멍한 상태가 되거나 좀 더 똑똑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면 '더 높은 곳을 행하여' 그의 눈길과 생각이 요동칠 것이다. '나를 능가하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는 말씀으로 더욱 충만

해질 것이다.

사람에게 코이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어항이나 연못이나, 강이나는 상황 혹은 환경의 차이는 자신의 인생에 적용한 생각(믿음)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강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을 어항에 묶어둔다면 그는 5-8cm 이상으로 자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연못에 있을지라도 넓디넓은 강을 유유자적하며 더 커질 수 있다고 자신을 고무(鼓舞)한다면 그는 90-120cm로 자라서 개천의 좁은 한계를 뛰어넘어 용으로 비상(飛翔)할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생각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믿인 것이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아무리 특이해도 그 스스로 어항을 뛰어넘어 넓은 강에서 유영(遊泳)하며 120cm까지 커질 수는 없으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사람은 그 생각 여하에 따라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개천을 탈출한 용(龍)보다 더 큰 꿈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안위에 연연하느라

아내조차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아서 셀 수조차 없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기인(起因)한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실 때 새로운 세상을 위해 방주를 지으며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430년의 종살이에서 어렵사리 벗어나 그들에게 주시마고 약속하신 것들과 같이 흐르는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이 파주한 홍해라는 절체절명(絶體絶命)에서 모세가 양을 치던 지팡이를 물 위로 내어밀자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것과 예수님이 꾸짖자 거센 풍랑조차 순종케 하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겨자씨만 하게 키우는 묘! 그래서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는 자신을 어항이나 연못, 혹은 강에서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상관이 된다. 어항에서 겨우 5-8cm가 자라는 코이나? 강에서 90-120cm까지 커지는 코이나는 차이는 자신의 생각 즉 믿음의 차이에 달려있다. hanmac@cmi153.org

인/터/뷰 총감독 클라라 김 집사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3월 3일 '뮤지컬 도산' 공연, 로마린다대학교 교회에서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인랜드한인회(준비위원장 15대 회장 김동수/16대 박학수)가 주최하고 대한인의 민족적 색채를 가진 작품들을 올리는 공연 기획 단체인 예기획(대표 황호진)이 기획한 '뮤지컬 도산' 공연이 오는 3월 3일 로마린다 대학교 교회에서 열린다. 이를 위해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은 나성성결교회에서 맹연습에 임하고 있다.



뮤지컬 도산 출연진들

순 열사가 옥중에서 사망할 때 '나의 영혼을 주님께 바칩니다'라며 숨을 거두는 장면은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관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될 것이다.

클라라 김 감독은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연했던 '오페라 뮤지컬 시인 운동주'를 다시 공연할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삼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주는 의미에서 이민자들과 연관이 많은 분에 대해 공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서 '뮤지컬 도산'을 공연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주최를 한 인랜드 한인회에서도 공연장인 로마린다대학교 강당은 뮤지컬 '시인 운동주'를 올리기에 너무나 큰 무대라고 다른 작품을 요구했으며 특별히 뮤지컬을 하

경험과 지식으로 '뮤지컬 도산'을 기획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저를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막이 내려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해달라고 기도했다니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감사했습니다."

클라라 김 감독은 공연을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미술팀이 연결이 된 것이 기도의 응답중 하나라고 말했다.

출연진은 12살 어린이부터 60대초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모였다. 출연자들의 배역에 대한 이해도와 역사인식에 대해 황호진 대표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언급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단원들에게 배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기 위해 숙제를 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시대상황에서부터 자신이 맡은 배역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공부하

△총감독/극본: 클라라 김 △연출/각색: 최원현, △작곡: 신원철, 윤국형, △음향감독: 신원철 △음악감독: 전창환 △안무감독: 전지수 △음향코치: 김경미, △조연출: 전유림 △테크니컬 프로젝트 매니저: 강진혁 △무대미술감독: 김민주 △의상: 정문희, 김소영 △메이크업: 네오미 김, 문혜영 △소품: 박선영 등 LA 지역의 교포 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극본부터 음악, 영상, 안무, 무대 모든 것이 창작으로 이루어져 전세계 초연 작품이 될 것이며 전 출연진 모두가 미주지역의 음악과 연기로 활동 중인 이들이 출연한다.

한편 3월 3일 5시 30분 리버사이드 로마린다 시에 위치한 로마린다대학교 교회에서 열리는 본 공연에 앞서 2월 23일 오후 2시 한인 타운에 위치한 마당물 광장에서 플래시몹 공연, 3월 2일 오후 4시 3.1만세운동 100주년기념 월서 퍼레이드 피날레 공연이 있다.

클라라 김 감독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삼일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려지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전 좌석 Free Invitation이며 많은 분들이 공연에 찾아와 나라사랑의 소중함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dosanahnchangho.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포 후원 도네이션도 받는다.

▲공연문의 및 도네이션 문의: (213)392-3133 (박준호 기자)

도산 안창호의 삶과 명언 토대로 창작... 예기획 기획

대로 창작했으며 전곡이 미국 현지의 교포 작곡가들로 구성된 작곡팀(신원철/윤국형)이 곡을 창작해 전 세계 초연으로 하는 작품이다. 뮤지컬 '도산'은 패재정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해 첫 연설, 그리고 하와이 여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학교를 다니며 청소하는 장면, 그 후 LA에 이주 후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며 글을 가르치는 장면 등 그의 삶 가운데 미주에

서 가장 활발히 활약했던 일, 그리고 해외와 조선에서의 독립운동 활약상을 뮤지컬의 극적인 전개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만나 볼 수 있으며, 3.1 만세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그때의 만세장면을 재연, 관객들과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도산 선생의 삶은 물론 유관

는 것을 원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공연기획부터 지금까지 오는 여정 속에서 어려웠던 점은 안창호 선생의 생애를 작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작가선정이 어려웠으며 바쁜 여정 속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서로 도와가며 하나가 되어 늦은 밤까지 연습에 매진하는 단원들의 모습이 감사했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저 혼자 얇은

고 습득해서 연습하는 첫날 모이게 됐습니다."

뮤지컬 도산은 총 3막 23신으로 공연시간은 2시간이며, 출연배역으로는 안창호, 이해린, 김구, 윤치호, 이봉녕, 이승만, 이동휘, 유관순, 정재용, 서재필, 안필립, 안필선, 안수산, 안수로, 윤봉길, 안중근, 이피히로부미 등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선조들과 조선을 억압했던 자들이다.

SAT 진학 상담 및 학자금 세미나

AYC주관, 강사 노준건 교육과미래 대표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가 주관한 진학상담 및 학자금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뉴욕교협에서 교육과미래 대표 노준건을 강사로 열렸다.

이날 12명의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세미나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부턴 대학 입학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학자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국가나 시 정부, 혹은 대학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청소년센터는 봄학기 SAT 수업을 2월 23일부터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718-279-1313)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청소년센터가 주관한 진학상담 및 학자금에 관한 세미나에서 노준건 강사가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곧 세상, 물질, 명예, 쾌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이다. 우리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이 바로 죄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이다.

오늘날 세상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모든 분야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우리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없는 고아로 방황하며 살고 있다. 회복을 기도하지만 회복을 기도하기 전에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죄악 때문이다. 뉴스를 보면 이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는 다 짓는 것 같다.

교회를 통한 회복

과연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많은 교회들이 배에 물이 차 가라앉기 일보직전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빠르게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주께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말씀을 깨닫는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해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오히려 회개하고 자백하며 기도하고 실천한다면 다시 회복의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정의와 공법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것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davidnjon@yahoo.com

동부교계 기사판



2019년 총회 학술대회 및 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총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기도회가 "북한교회재건을 위한 총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부와 동부에게 각각 열린다.

▲문의: (516)387-9940 ext.1004 김원주 집사

2019년 신유 축복 대성회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이 주최하는 2019년 신유 축복 대성회가 유수양 목사(목자교회)를 강사로 △3월 1일(금) 저녁 7시30분 △2일(토) 오전 10시30분(신유집회), 저녁 7시30분 △3일(주일) 저녁 7시30분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8)279-1414

퀸즈장로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설립 45주년 기념예배가 2월 24일(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한동대학교 국제여름캠프

뉴욕한인청소년센터(대표 양희철 목사)에서는 2019년 제 5회 한동대학교 국제여름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한동대학 교수들의 경제, 철학, 크리스천 리더십 등 저명한 강의 △서울, 전주, 경주, 포항 등 역사와 문화관광체험 △전주 농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연합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봉사 △한동대 총장의 Certification을 받게 된다.

▲문의: (718)353-1388 최지호 목사

스마트폰 강좌

미주기독교미디어그룹 씨존(C-Zone)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83기)가 2월 23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100분동안 열린다. 강의 내용은 손안의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카톡에서 말로 글쓰기, 카톡으로 번역하기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등을 강의한다.

▲문의: (718)414-4848, 353-2537

뉴욕초대교회 교사 세미나

뉴욕초대교회(김승희 목사)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명준 장로)가 주최하는 교사 세미나가 2월 24일(주일) 오후 12시 45분부터 3시까지 지하 아동부 예배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김은주 목사(유니온신대 실천신학 교수).

▲문의: (347)502-2571

“오늘, 내일, 모레를 가는 목회”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 주강사 나광삼 목사

뉴욕목사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2월 18일 롱아일랜드에 있는 갑곶원 수양관에서 신년기도회를 가졌다.

워싱턴근거리교회 나광삼 목사를 주강사로 열린 신년기도회는 오전 7시30분 베이사이드에서 모여 함께 출발해 수양관에 도착, 9시 30분부터 찬양과 예배 그리고 세미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바닷가 산책과 교제, 그리고 부흥회와 기도회가 연속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유태웅 목사와 최요셉 목사 찬양인도 후 김진화 목사(총무) 사화로 대표기도 김정숙 목사(수석협동총무), 성경봉독 김희숙 목사(회계), 설교 나광삼 목사, 신년인사 회장 박태규 목사, 광고 박사신 목사(서기), 축도 유상열 목사(신학분과)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광삼 목사는 “내일이 궁금하십니까?”(사6:1-24)라는 제



뉴욕목사회 신년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목의 설교에서 “내일의 나의 목회가 궁금하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라.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답을 주신다”며 “목회사역에 적용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보다도 누구를 따라하려 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하나님께 나를 쓰시게 하려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광삼 목사는 한기부 워싱

턴지역 대표회장과 한기총미 주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어 김여호수아 목사의 기도 후, 주강사 나광삼 목사가 “오늘, 내일, 모레를 가는 목회”(눅13:33, 빌3:12-16)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나광삼 목사는 △목회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목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가

있으며 목사와 장로는 구분된다 △목회는 지금 내가 처해있는 현실과 환경 속에서 해야 한다 △외형적인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를 한다고 기죽지 말고 부흥회와 직분자 교육 등 행사를 해야 한다 △정식 예배때 언어와 개인적 언어는 구별되어야 한다 △강단 언어는 목사의 언어이며, 축도는 성경에 있고 그 결과는 엄청난 등 내용을 강의했다.

식사 후 오후에 진행된 영성 집회에서 나광삼 목사는 요한복음 20장 24-29절을 본문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회장 박태규 목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됐다.

또 3시50분부터 세미나 2부가 계속됐다.

뉴욕목사회는 3월 11일(월) 1차 임신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또 목회자부부 위로여행을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가진다. 선착순 40명 모집, 총비용은 1,250달러다.

(정리: 유원정 기자)



해외기독교문학협회 2019년 첫 모임을 마치고 임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낙화’ 를 통해 본 조지훈 시 정신...

해외기독교문학협회 2019년 첫 모임, 아들 조광열 발표

해외기독교문학협회(회장 이조연) 2019년 첫 모임이 2월 2일 오전 10시30분 로고스교회(임성식 목사)에서 2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는 최광진 목사(부회장) 인도로 기도 한재홍 목사(이사장), 설교 윤세웅 목사(고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목사는 “제단 숯불”(사6:6-10)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악과 죄로 얼룩진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함의 말씀이 있다. 경건한 이사야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앞도려 불결한 자신을 고백하고, 제단의 숯불로 모든 죄악이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께로부

터 소명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소명을 완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구속의 은혜를 선사받은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하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랴’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는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의와 기록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언어와 행동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폐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를 선포하자”고 말

했다.

김태종 목사(고문)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는 이조연 회장의 사화로 진행됐다.

먼저 조지훈 시인의 큰아들 조광열 수필가는 “시 ‘낙화’를 통해 본 아버지의 시 정신”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다.

조광열 수필가는 아버지 조지훈 시인이 시의 원리의 첫 장인 ‘시의 생명에서 시란 무엇인가’를 말하며 “시란 것은 진실한 생각, 진실한 느낌, 진실한 표현을 통하여 나오는 그 자신의 전인격적 체험에서만 스스로 체득할 수 있고, 체득한 시인의 생명의 결정인 작품을 통해 최상의 작시법을 듣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낙화’는 시의 가치보다 개인적으로 아버지께서 가장 애착을 가진 시라며, 가족들 모임에서도 “낙화”와 “절정” 두 편의 시를 낭송하신 적이 있다

고 말했다.

또 ‘낙화’가 쓰인 시대 배경을 소개하며, 김남주 교수는 조지훈 시인을 지배하던 생각은 허무와 정념과 순명의 현실주의였다고 했으며, 오세영 교수는 조지훈의 시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선비정신이며 ‘자연은 둔적인 것’과 ‘사회참여적인 것’의 두 경향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발표와 시 낭송의 시간에서 김태종 시인은 “송구영신”, 이철수 시인은 “세탁기”, 조희호 시인은 “서울의 행복”, 신석호 시인은 “커피 한 잔”, 지인식 시인은 “새해의 소망”을 낭송했다.

박문근 목사(이사장)의 기도 후 친교가 진행됐다.

해외기독교문학협회는 매 2달에 1회 첫 토요일 모임을 갖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김인철 의료선교사 살롯장로교회 방문

김인철 의료선교사가 지난 10일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를 방문해 선교보고를 했다. 이날 김 선교사는 교인들의 골밀도 측정과 시력검사, 안경 제공 등을 통해 사랑을 베풀었다. 선교적 교회를 지향

하는 살롯장로교회는 이번 김 선교사의 방문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김 선교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NJ, and other regions,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

복음통일 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

국제통일전문가네트워크(공동대표 정성진 목사, 고명진 목사, 신창민 목사)가 주최하고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가 주관한 북음통일 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14일 오후에 열린 세미나는 김요한 목사(통일선교전략협의회 대표, GMS총회세계선교회 파송선교사)가 '서울과 한국과 평양과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김요한 목사는 "평양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에 김일성 우상이 서있다. 이는 한반도 영적 현주소가 거대한 어둠의 세력과 영적전쟁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시는 순간 사탄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일본을 통해 신사참배하게 했다"며 "1938년 신사참배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무릎 꿇었다. 그 결과 해방 후 분단이



국제통일 전문가 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사랑의빛선교교회가 주관한 북음통일 전문세미나 및 연합기도회에서 윤학렬 감독이 강의하고 있다

돼버렸다. 8.15는 해방의 날이자 분단의 날이다. 북한은 일제보다 더 강력한 공산진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탄의 권세로부터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정신을 명확히 갖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진다"며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 이데올로기 싸움은 끊임없이 수렁으로 빠지게 한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사역 제대로 하면 북한 공산정권은 여러고성이 무너지듯 무너뜨

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적분별력과 영상의 파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윤학렬 영화감독은 "영적전쟁의 전선은 문화를 도구로 사용하는 시대가 됐다. 영상, 스포츠, 음악을 가지고 사탄이 점유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점유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의 파급력에 대해 윤 감독은 중국의 사드 사태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에 사드 사태가 님을 때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가해 한국이 중국에서 무엇을 한다는 게 불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의 무명가수인 황치열 형제가 중국에서 열린 중국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한국말로 불러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중국에 조류독감이 돌았을 때 치킨수요가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방영됐고 극중 전지현 씨가 치킨과 맥주를 먹는 장면이 나왔을 때 중국의 치킨 판매

가 늘어난바 있다"며 "문화는 공기 같은 것이며 문화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에는 세대간 갈등이 존재했는데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 세대간 갈등이 치유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윤 감독은 "'1919 유관순'이 오는 3월 14일 개봉된다"며 "'1919 유관순' 영화는 100년전 기독교인들에 대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올해가 3.1절 100주년이란 걸 생각지 못한 채 준비한 작품이었는데 정부의 요청으로 제작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영적전쟁의 시대다. 영적전쟁에 문화가 사용되고 있다"며 "문화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문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오전은 강성진 선교사(극동방송 대북설교방송요원)가 '북한지하교회의 실제와 성도의 신앙', 신창민 교수(서울법대)가 '통일경제방안, 실사구시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그리고 저녁집회는 이정훈 교수(울산대법학과, 엘정책연구원 원장)가 '청교도윤리로 세운 위대한 미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19년 총회 학술대회 및 기도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김재열 목사) 총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기도회가 "북한교회재건을 위한 총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서부와 동부에게 각각 열린다. 서부는 4월 1일(월) 오후부터 3일(수) 오전까지 상향중앙장로교회(권현철 목사, 650-550-0071)에서 열리며, 강사는 이반석 목사(김재열 선교사, 김요한 선교사, 등록신청서(www.kapc.org)는 이메일(isb6418@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등록비는 개인당 50달러, 부부 80달러(총회 소속, 그 외의 경우는 추후결정), 숙박은 예약이 필요하며 공항(샌프란시스코)은 차편 제공.

▲문의: (408)891-0454 이수복 목사

뮤지컬 '도산' 플래쉬몹 공연

뮤지컬 '도산' 플래쉬몹 공연이 23일(토) 오후 2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마당물 광장에서 열린다.

▲문의: (213)392-3133

폴 아트 리 개인전

폴 아트 리(Paul Art Lee) 개인전이 '집사가의 사랑이야기'라는 주제로 23일(토)부터 3월 9일(토)까지 Arena 1 Gallery(3026 Airport Avenue, Santa Monica)에서 열린다.

▲문의: (310)606-9255

사랑의빛선교교회 이정훈 교수 초청 강의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는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과, 엘정책연구원장)를 강사로 초청, '왕이신 그리스도, 그의 주권과 통치'라는 주제로 24일(주일) 오후 1시30분 강의를 개최한다.

▲문의: (626)744-9191

마커스워십 초청 연합예배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는 마커스워십 초청 연합 예배를 3월 1일(금) 오후 7시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에서 갖는다. 강사는 다니엘뉴먼 목사(아주사피사피 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 디렉터).

▲문의: (213)347-5080

기감 남가주 복지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남가주 복지방회가 24일(주일) 오후 5시30분 만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 4561 West Pico Boulevard LA)에서 열린다. 하루 전날인 23일(토)에는 전야제로 부흥회가 오후 7시부터 지방 연합으로 모인다.

▲문의: (213)365-6191

미라클포인트교회 개척

전 남가주순복음교회 박재만 목사가 라하브라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명은 '미라클포인트교회'로 내일에 대한 소망과 어제에 대한 치유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하는 비전으로 설립됐다. 예배시간은 오전 8시와 10시30분이며 주소는 1540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문의: (714)822-7721



한인가정상담소가 실시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수료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가정폭력 전문 종교지도자 25명 배출

한인가정상담소,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개척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자 25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40 Hour Domestic Violence Advocate Training)'을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인가정상담소가 대안으로 개설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총 5일 동안 이어진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카니정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

해서는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과 한인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 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았으며, 수강생 전원에게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블루실드 파운데이션(Blue Shield Foundation) 과 연방정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한인가정상담소는 40시간 교육과정은 물론 1박2일 목회자 수련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한인 기독교 사역자들이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 협력하고 있다.

▲문의: 이미리 홍보담당 (213-235-4848, 619-623-0909).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평화를 품다, 마음을 잇다, 통일을 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019 미서부 평화통일 원탁회의의 추진위원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지역 제1차 평화통일 원탁회의 연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평화를 품다, 마음을 잇다, 통일을 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2019 미서부 평화통일 원탁회의의 추진위원 전체회의가 18일 오전 11시 옥스퍼드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곽도원 부위원장 사회로 열린 2019 미주지역 평화통일 원탁회의의 범종포 추진위원회(위원장 이

병만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오는 27일(수) 오후 5시 에너하임에 위치한 웨라톤 파크 호텔 파크 볼룸에서 열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미주지역 제1차 평화통일 원탁회의에 대한 설명회를 겸해 가졌다.

원탁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재미동포의 역할' 주제로 미주지역 공론의 장을

마련, 미주동포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열리게 된다. 특별히 100년전 오렌지 샌디에고 이민 1세대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활동을 되돌아보고 100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역할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된다.

이병만 추진위원장은 "이미 한국은 모든 계층이 통일을 향한 마음이 하나로 가고 있다"며 "동포사회가 하나가 돼 통일 이슈들을 수렴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모 민주평통 OC-SD 회장은 "한국과 동포사회의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지만 좋은 의견들이 개진돼 한국 정부와 동포들에게 전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 행사들이 펼쳐져 한인 이민 선조의 뜻을 기리고, 이민 200년을 앞둔 한인사회의 비전을 보여준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평했다.

이병만 회장은 이날 그동안 펼쳐졌던 다양한 행사들의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계층의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성과를 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도 "종교와 스포츠, 예술을 포함한 모든 한인단체와 주류사회까지 함께 모여 한인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성공적인 행사 마무리를 축하했다.

마찬 최석호 거주자위원장은 세크라멘토에서 전화로 격려했으며 유관순의 날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평안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임현수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강사 임현수 목사

미주평안교회 설립 44주년 기념 부흥회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는 교회설립 44주년 기념 부흥회를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주제로 14일부터 17일까지 임현수 목사(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임승진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5일 둘째 날 저녁집회는 임현수 목사가 '전도의 목적'(마28:18-2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 목사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하고 영혼구원과 직결돼야 한다"며 "오늘 본문말씀인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해도 집안간 동생들 수순문해서 데려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잃어버린 영혼 데려올 때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아버지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불쌍히 여겨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한인재단 LA 주최 미주 한인의 날 평가회에서 이종용 목사가 환영사하고 있다

'이민200년 앞...한인사회 비전 보여줬다'

미주한인재단LA 주최 미주 한인의 날 평가회

미주한인재단 LA(회장 이병만 장로)가 주최한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 대한 평가회가 14일 오후 12시30분 용수산 식당에서 열렸다.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

회) 사회로 열린 이번 평가회에서 참석자들은 연방 의회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의회, LA 시의회 뿐 아니라 뉴욕과 시카고 등 미 전국 곳곳에서 한인 이민 116주년을 기념하는 다양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 감독회장 항소 결정

법원이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2016년 9월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해당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확인(2018가합549423) 소송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가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감독회장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한 관계자는 13일 “판결에서 감독회장 지위가 부존재하다고 했지만 즉시 항소할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자격이 유지된다는 변호인들의 자문을 받았다”면서 “감독회장이 스스로 사의를 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을 내

지 않고 있는 기감 총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원고 측이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면 판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교단 내부에서는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항소 여부를 토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전 감독회장은 이미 지난해 4월 27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전 감독회장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격을 회복한 바 있다.

백석대 ‘찾아가는 졸업식’

팜 세라톤 라구나호텔... 해외 취업학생 26명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목사)는 지난 14일 미국 팜 세라톤 라구나 호텔에서 해외취업으로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졸업생 2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졸업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년째다. 현재 해외 취업한 이들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K-Move스쿨, 청해진사업(청년해외진출)을 수료한 이들이다.

행사에는 졸업생 외에도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들과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정정미 학사부총장, 켄 마이클로네시아 미쯔오 사토 사장, 팜 관광청 이사회장(미틀튼 모리나가 회장, 외교부 팜 하가나

임희순 출장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졸업생 대표로 인사한 호텔경영학전공 하수연(24·여)씨는 “4년간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응용해 팜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며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로 첫 발을 내딛었다.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감사한 마음과 성실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켄 마이크로네시아 미쯔오 사토 사장(Mitsuo Sato)과 밀튼모리나가 팜 관광청 이사회장(Milton Morinaga)은 “백석대에서 훌륭한 학생들을 보내준 덕분에 팜 관광객들의 여행 만족도도 날로 높아지

고 있다”며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도 선배처럼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리라 믿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은 “여러분은 호텔리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며 “출발점에 선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더욱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응원했다.

백석대는 이날 오후 팜 한인회관에서 팜 한인회(회장 박재문)와 MOU를 체결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백석대 졸업생의 현지 적응, 안전사고 대응 등에서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대학은 추후 팜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봉사, 한국문화 캠프 등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7일과 22일 보낸다. 후원은 탈북난민인권연합과 나사렛형제들선협을 통해 할 수 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좌시하지 않겠다” ... 현 정부 비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 취임식이 1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전광훈 정교도영성훈련원 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제25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에 들어갔다. 3000여명(주최측 5000명)이 모인 취임식은 예배와 출간 기념회, 일천만 유튜브 시청자 조직 서명 등 순서로 진행됐다. 전 대표회장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두 차례나 써가며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이다. 대표회장으로서 국가 해체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에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통해 이 나라를 해체하려는 사람들을 좌시

하지 않겠다”며 “결단코 그들에게 대한민국을 내줄 수 없다. 이 나라를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영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된 전 대표회장의 취임사는 ‘국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도문을 인용했고 근현대 집권의 한국 역사와 6·25 전쟁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당시 트루만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남한에는 50만 기독교인이 있다’는 보고였다”며 “한국 민주화와 경제 발전의 중심엔 교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전 대표회장은 또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전체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까지 나서서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교회가 (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돈으

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로당 찌꺼기와 주사파 찌꺼기가 붙어 청와대를 점령해 한국을 해체하려고 한다”며 “(이 정권은) 이승만의 건국을 인정치 않는다”고 맹 비난했다.

전 대표회장은 1978년 보니옴의 히트곡, ‘바빌론의 강가(By the river of Babylon)’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취임사를 마쳤다. 그는 “이 노래는 시편 126편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바벨론 포로 시기 유대민족의 애환을 담고 있다”며 “팝송이 아니라 복음성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길자연 전 한기총 대표회장이 설교했으며 김부성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승만의 분노’를 서평했다. 이승만의 분노는 전 대표회장이 2016년 펴낸 책이다. 격려하는 오세조(전 유니언대) 이강평(서울기독대) 총장, 장경동 대전중문교회 목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각각 맡았다. 축사는 권태진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이 전했다.

“한국교회 수호자...순교정신 되새겨야”

이단 연구 탁명환 소장 25주기 추모예배

이단 연구가로 활동하다가 1994년 피살된 고 탁명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이단전문 잡지인 ‘현대종교’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탁 소장 추모예배를 갖고 고인의 뜻에 따라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사역에 집중키로 했다.

탁 소장과의 동거인 홍성현 수송교회 은퇴 목사는 “탁 소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이단을 찾아가 성경적·신학적 분석을 한 뒤 교계와 한국사회에 폐해를 알렸다”면서 “그의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를 보호할 수 있었다. 한국교회는 지

금이라도 탁 소장의 순교를 추모하며 기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은 “안식교에서 개종해 전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단이라는 공격이 있었다”면서 “당시 어려움을 당할 때 탁 소장이 앞장서 변호해줬다. 그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단 예방 사역이 가능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탁 소장의 자녀인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 탁지원 현대종교 대표, 탁지웅 일본성공회 동경교구 사제는 부친의 유업을 잇겠다고 했다. 탁 교수는 “이단 단체에 속한 괴한의 피습으

로 부친이 순교한 지 25년이 흘렀지만, 한국기독교 역사에 새겨진 당신의 족적과 업적은 한국교회 수호의 소중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하셨던 유업을 잇는 데 힘쓰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1937년 전북 부안 출신인 탁소장은 전북대 철학과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64년부터 이단 및 신종교 연구를 시작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일교 전도관 장막성전 구원과 대성교회 다미선교회 등의 실체를 밝혔으나 1994년 2월 19일 새벽 괴한의 피습을 받고 별세했다. 현대종교는 이날 탁소장의 저서 23권과 논문 및 기고문 90편을 휴대용 저장장치에 모은 e자료집을 헌정했다.

북 동포 살릴 쌀 넣은 페트병 해류에 띄워 보내

탈북난민인권연합 CCC나사렛형제들, 인천 석모도서

북한 연안군에서 직선거리 11km 떨어진 인천 석모도는 매달 두 차례 북한 해주 쪽으로 흘러가는 강한 해류가 형성된다.

19일 오전 10시쯤 탈북난민인권연합 소속 회원과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출신 나사렛형제들 회원 10명이 눈길에서 페트병 615개를 담은 포대 50개를 바닷가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1.5ℓ 페트병에는 쌀 1.3kg과 구종제, 짭쌀한 설교 말씀이 적힌 종이 들어간다. 페트병 외부엔 비닐로 밀봉한 성경책과 라디오를 테이프포 단단히 고정한다.

쌀을 던지기 전 김철해 광주벤엘교회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필요하다”면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의 쌀과 복음이 있다. 우리 마음이 페트병을 통해 전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날씨는 영상 1도였지만 눈발이 흠날렸고 쌀쌀한 바닷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훨씬 낮았다. 불펜 잉크가 얼어 써지지 않을 정도였다.

언 손으로 페트병을 바다에 던지던 탈북민 박운병(71)씨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고위층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지만, 서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며 “탈북민 입장에서 봤을 때 페트병이야말로 쌀과 복음을 서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000년 탈북한 이재건(82)씨도 “북한에서 식량은 돈이나 마찬가지로”라면서 “황해도도 중국 점령지대가 아니어서 외부 세계의 정보는 물론 식량도 얻기 힘들다. 주민과 해안 경비대

에게 전달되는 페트병은 1개월치 급여와 같다”고 귀띔했다.

페트병을 같이 던진 웬디 화이트 크리스천 프리덤 인터내셔널 대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과 성경을 전해주려는 남한 크리스천들의 노력이 대단하다”며 “북한 주민에게 쌀과 성경이야말로 진짜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는 김용화(66)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 4만5000개가 넘는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냈다.

김 회장은 “매달 3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힘이 부친다. 하지만 우리가 보낸 페트병을 받고 탈북했다는 북한 주민을 만날 때마다 힘이 난다”고 웃었다.

페트병은 빠르면 4~7시간 만에 황해도 해변에 도착한다. 작은 페트병이 기아에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과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CCC나사렛형제들 소속 이선상(62)씨는 “이 쌀은 북한 주민에게 생명이자 복음이다. 하나도 유실되지 않고 동포들에게 전달되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고 말한다.

이경우(58)씨도 “CCC 출신 신앙인들이 매달 2회 모여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해 돈도 모으고 페트병 포장도 하고 있다”면서 “남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북한 주민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닐에 밀봉된 성경이 페트병에 들어갔다.

이날 쌀 800kg과 성경책 100권이 북쪽으로 흘러 들어갔다.

여목사 1만명 시대...여전한 유리천장

한국교회 목회자 성평등 현주소

한국교회가 여성목사 1만명 시대를 열었다. 대형교단에서 여성총회장이 선출되는가 하면 대형교회를 일군 여목회자도 하나둘 생겨났다.

14일 각 교단 및 교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여성목사의 수는 이날 현재 1만명을 넘어섰다. 1931년 기독교대학감리회(기감)가 첫 여성목사를 배출한 이래 88년 만이다.

여목사가 가장 많은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총회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9월 정기총회에서 전년 도 목회자 1만9828명 중 여성은 2122명이라고 밝혔다. 연 2회 목사안수식을 갖는데, 해마다 150~200명씩 늘어 현재 2505명에 달한다.

다음으로 여목사가 많은 교단은 예장 합동개혁으로 1800여명이었고, 예장 중앙 1500여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1100여명, 예장 합동중앙·백석대신 1000여명, 기감 750여명, 한국기독교장로회 450여명 순이다. 성결교와 예장 개혁총연·피어선, 구세군, 기독교한국침례회, 독립교회 등도 여성목사 안수를 시행하고 있다. 군소교단 총회신학을 졸업한 목사까지 포함하면 ‘여목사 1만명 시대’를 실감할 수 있다.

여목사들은 안수식에 참석해 “하나님 종으로서의 책임

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쁘게 하신 교회에 경건한 모범을 보이며 충실히 목회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다.

눈에 띄는 여목사는 김양재 우리들교회 목사와 김형민 빛의자녀들교회 목사다. 김양재 목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었다. 목회 중에도 유방암으로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 항암치료를 여섯 차례나 받았다. 하지만 말씀운동을 펼치며 환난당한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 2003년 우리들교회를 개척해 현재 1만2000여명이 출석하는 대형교회를 이끌고 있다. 큐티선교회(Quiet Time Movement·QTM)를 설립, 말씀묵상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김형민 목사는 19년 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서 ‘강통(컨테이너)교회’를 개척한 뒤 서울시립대 국민대 경희대, 호주 맥쿼리대, 폴란드 바르샤바대 등 국내외 대학 20여 곳에 교회 및 기독교아리리를 세웠다. 학원선교를 활발하게 펼치며 청장년 목회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전수하는 사역인 ‘사인 클럽’을 준비하고 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정삼영 은빛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대형교단에 선 처음으로 여총회장에 선 출했다. 예장 개혁총연 5개 대회와 60여개 노회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엔 부흥사단체인 한국기독교영광회 대표회장에도 취임했다.

여총회장은 정 목사가 처음은 아니다. 중소형 교단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여총회장을 배출했다. 김희선 예장 통합피어선 총회장은 “남녀 차별 없이 마음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겨야 한국교회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계에서는 여성목사가 늘어나는 현상은 지속적인 남녀평등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회장은 “정부나 사회의 남녀평등 정책이 지속되면서 여성 인력에 주어지는 기회가 확대됐다. 그렇게 육성된 여성들이 고급 인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계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여전한다는 지적이다. 여목사가 늘고 있지만 전체 목회자 10명 중 여목사는 1명 수준에 불과하다.

일래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여성은 여성에게’라는 당시 상황을 고려한 선교 정책에 따라 여교역자 제도가 인정됐다. 하지만 해방 후 근본주의적인 성서해석과 남성 위주의 교회정치 및 제도가 확립돼 오히려 여교역자의 활동반경이 축소됐다.

여성에 대해 보수적 전통

을 고수해온 예장 합동과 고신·합신·대신 등은 총회 헌법이나 규약, 결의 등에 여목사 제도를 금하거나 절차상 목사안수에 병적확인서를 요구해 여목사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 교단의 여교역자들은 남성과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안수를 받지 못하고 법적 당회회원자격 보장도 받지 못한, 당회장 재량에 좌우되는 직무만을 갖는 ‘전도사로 헌신한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딤후 2:12) 등의 말씀을 인용해 여목사 제도를 허용치 않는다.

목사안수를 받았어도 교회 청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통합 측의 한 여목사는 “교회를 맡아 개척, 성장시켜 놓으면 교회 안에서 남성 목회자를 모시려는 움직임이 있어 계속 개척교회만 전전하는 예가 왕왕 있다. 특히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교역자에 비해 보수를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유순임 한국여교역자목회연구원 이사장은 “여교역자들의 위치 확보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며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경력단절 등으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 교회와 교단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교도소 선교칼럼 (55)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변화된 지도자들

수감되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은 출소 후에도 사회에 큰 공헌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1. 새 희망 사역 설립자(New Hope Ministries)

용접공 루터 차베즈는 소년원 창틀 쇠막대를 설치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그가 소년원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루터의 아들 레이였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레이는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쳤다. 아버지 역시 아들 레이가 자신의 죄값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보석금으로 아들을 석방시킬 의향이 전혀 없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일로 상심하고 힘들어했지만 처벌로도 레이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 소년 레이가 훗날 콜로라도 주에 있는 레이 크우드 시에서 술과 마약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재생을 돕는 시설을 설립하여 큰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61세의 레이 차베즈 목사님은 1988년 덴버의 본인 아파트에서 부인 홀라와 함께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은 수천 명이 출석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다.

38년 동안 부인과 함께 사역하며 영혼구원과 삶의 회복을 목표로 삼은 레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 교회는 술, 마약, 범죄조직, 교도소, 노숙, 파괴된 가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다. 레이 목사님 역시 같은 아픔을 경험했으므로 그들과 공감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제시를 할 수 있는 분이셨다. 중독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약중독회복 센터를 시작했다.

레이 목사님의 간증이 "아주 작은 희망"이란 책으로 출판되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교도소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다. 새 희망 사역은 확장되어서 뉴멕시코 주에 있는 아레스 시에 교회 하나를 시작으로 콜로라도 주에 있는 오로라 시와 스피튼 시에 각각 교회가 세워졌다. 마약중독회복 센터는 희망의 센터라고도 불리며 믿을

을 기초로 한 비영리단체이다.

나는 레이 목사님 교회에 초대받아 예배시간에 변화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그 교회의 재생원에 재소자들의 책이 출판이 될 때마다 전달해주곤 한다.

예수님이 레이 목사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주님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지 소개하는 강력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발견한 희망"-레이 차베즈 목사

나의 형 프랭크는 법적인 문제로 형무소에 갇힌 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 간절히 기도해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내가 여섯 살 무렵 형은 나를 교회로 데려갔고 어머니도 함께 다녔었다. 그러나 내가 아홉 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바람이 나서 도망갔고 급기야 부모님이 이혼하는 비극이 일어났다. 어린 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나는 거리에서 방황하며 술과 마약, 폭력으로 얼룩진 시간을 보냈다.

그 당시에 40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재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셨다.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말썽을 피우며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술과 마약은 끊을 수 없는 내 삶의 동반자였다. 그런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스물한 살 때 캘리포니아에서 콜로라도 주로 오는 기차에서였다. 출소 후 목사님이 된 형 프랭크를 만나서 브라이시로 오는 길이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길을 보여 주셨지만 아직도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1973년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살인혐의를 받고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 때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다.

"레이야, 네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때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술이나 마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오랜 시간 나를 속박하던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이 38년 전의 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모든 속박과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신다. 그 후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수감되고 2년 반 동안 소송 끝에 결국 풀려 나온 나는 23살 때 목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형제는 모두 목회의 길을 걷어가게 되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멕시코 엔세나다 교도소 재소자들

제 15회 사랑의 담요 보내기 캠페인 선교단체 지저스멕시코, 교도소 등에 배포

멕시코 선교단체가 멕시코에 사랑의 담요를 보내는 캠페인을 벌이며 미주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15년 넘게 멕시코의 교도소, 재활원과 요양소, 빈민촌 학교와 교회, 농촌 교회 및 농장 캄보 등에서 전도지 및 구호품 배포, 영화상영, 말씀 선포, 찬양집회, 의료사역 주선, 교회 단기선교 유치 등 다양한 선교사역을 해온 Jesus Mexico(대표 최재민 선교사)가 매년 겨울이면 미주 한인교회와 성도들의 후원으로 사랑의 담요를 멕시코의 교도소 등에 배포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인교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최 선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와 달리 멕시코 교도소는 재소자들이 기본적인 생필품도 제공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라며 "심지어 3-4인용 감옥에 5-6명을 수용할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 바닥에서 담요 한 장만 깔고 자는 재소자들도 많다"라고 전했다.

멕시코의 각 교도소마다 수천 명씩의 재소자들이 수용돼 있으나 멕시코 정부에서는 담요는 물론 생필품도 거의 공급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저스멕시코에서는 매년 겨울철에 멕시코 여러 교도소들에 담요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다.

담요의 가격은 1장에 미화 10달러씩이며 개인의 형편에 따라 단 몇 장도 가능하다. 또 미주의 교회들이 멕시코의 교도소를 방문해 성도들이 직접 재소자들에게 담요를 나누어주는 일도 가능하다.

최 선교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독교화 상영 사역을 해오며 간증도 많다. 교도소, 재활원/요양소, 캄보 영화 사역 이외에도 빈민촌과 농촌의 교회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을 돕는 일을 하며 특별히 빈민촌 학교와 그 어린이들을 돕는 사역을 해오고 있다.

이번 겨울에도 뎀피스코 회협의회(회장 윤익상 목사), 남가주 풀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등 교회를 포함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후원으로 엔세나다 교도소와 옹고 교도소에 우선적으로 사랑의 담요를 전달했지만 담요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오는 곳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말부터 올 겨울에는 특별히 온두라스(Honduras), 과테말라(Guatemala), 엘살바도르(El Salvador) 등지에서 먼 거리를 걸어와 멕시코 미국 국경 티화나에 모인 중미 난민 '카라반' 어린이와 성인들에게 15차례의 영화 상영과 전

도지, 성경, 구두, 모자, 과자, 생필품 등의 배포, 멕시코 현지복음전도지를 통한 복음전파 및 기도회 인도 등 사역을 했다.

지난 15년 동안 Jesus Mexico 최재민 선교사의 선교사역을 협력해온 헤세드 선교회 대표 박사무엘 목사(전 크리스천헤럴드 편집국장)는 "미주의 교회가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내 동포들 및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미주 한인교회들이 이번 선교 사역에 동참해 우리 바로 밑에 있는 가난한 이웃 나라의 감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주린 자, 병든 자, 나그네들에게 담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에 주님의 귀한 선교사역에 앞장서고 계신 미주 한인교회들이 부디 이번 제15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리 감사드린다"고 당부했다.

"멕시코 교도소 사랑의 담요 전달 사역이나 티화나 빈민촌 학교 및 교회 후원 단기선교 사역, 특별히 의료선교사역 동참에 관심 있는 교회나 단체는 지체 없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박 목사는 더했다.

한편 Jesus Mexico 최재민 선교사의 선교활동은 블로그(blog.koreadaily.com/4mexico)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5mexico)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요는 관세 문제로 멕시코 내에서 구입하며 1장당 미화 10달러다.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후원금을 보내주시길 주소: Jesus Mexico, 20501 Anza Ave #23, Torrance CA 90503.

▲문의: (213)605-1978, 675-7575

(기사제공: 지저스멕시코)

드라마 구약 (3)



김덕수 목사
생성성경사역원 LA 지부장
하늘소망교회 담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며 창세기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고, 출애굽기에서는 만들어진 그 국민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국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통치원리로서의 국법인 율법도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살 영토만 있으면 됩니다. 민수기는 그 땅을 찾아서 가는 광야여행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찾으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출발해 보실까요?

민수기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이동이다"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지점을 알면 좋습니다.

시내산,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처음부터 광야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인 시내산에서 성막 봉헌에 이어서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봉헌하는 것으

로 끝났습니다. (출40:17)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가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하여 봉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

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시작되는 무대는 시내산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는 날짜는 2월 20일이라고 '민수기 10:11-12'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민10:11-12)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고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했으니까, 성막을 봉헌한 후 50일을 시내산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50일 동안 했던 일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1월 14일에 두 번째 율법절을 지킵니다. 이 장면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1장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3,550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 끝나고 난 후에 은 나팔을 사용하여 행군신호도 약속을 합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10장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동입니다! 목표지점은 바란 광야 가데스입니다.

(민10:12)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두 번째 지점인 바란 광야 가데스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 복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국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주셨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려는 찰나에! 저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못들어 가겠다고 합니다.

사명감당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사를 먹으면서 말이죠. 사명감당하기를 포기했던 그들은 그야말

민수기-이동이다-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시내산,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 모압평지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그 땅에 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지고 나온 엄청난 큰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명이 메고 와야 했을 정도니 얼마나 좋은 곳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덩치가 너무 커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음으로 들어가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로 먹다가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요단강 동쪽 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는 그냥 빈 땅이 아닙니다.

애덤,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모리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저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요단동편에서 끝이 납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중요한 세 장소는 시내산,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요단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바라보이는 요단동편의 느보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고별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가 어떤 설교를 유언처럼 남겼는지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주셨던 레위기 이야기도 그 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보라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보라는 것이 조금의 차이입니다.

다음에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정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dsukim@gmail.com

새플린 임상목회 (25)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와 종류(4)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새플린)

1.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지난 컬럼(1) 참조

2. 대표적인 정신 질환의 종류

1)불안증(Anxiety Disorders): 지난 컬럼(1) 참조 2)우울증(Depression): 지난 컬럼(2) 참조 3)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지난 컬럼(3) 참조 4)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지난 컬럼(3) 참조 5)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적 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 질환입니다. PTSD 질환 환자는 초기 상황과 유사하거나 연상이 되는 상황에서 쉽게 충격을 받으며 긍정적인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 상황을 야기하는 사건의 소위 플래쉬백이라는 증세를 체험하며 이를 통해 극도의 불안과 분노가 분출되기도 합니다. 주로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상자의 고통을 목격한 군인들이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생존한 사람들에게서 빈번히 발견되는

대표적 정신 질환입니다. 과거에는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 파병되었던 군인들 가운데 거의 25% 이상이 PTSD 장애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중독/약물 사용 장애(Addiction/Substance Use Disorders):

중독증은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충동적인 사용을 야기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속적인 뇌 질환에 속합니다. 약물 중독과 도박 중독 등은 모두 정신 장애의 치료 및 통계 편람, 즉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포함된 정신 장애의 일종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저 기분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복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시작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약물 복용은 두뇌의 판단 능력과 절제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다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충동으로 인해 극심한 중독에 빠지게 만듭니다.

중독 장애가 무서운 것은 약물 중독과 같은 중독 자체만이 아니라 양극성 장애나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다른 정신 질환들을 유발해서 더 큰 고통 속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회복의 첫 단계로서 오랜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금단 현상과 강력한 재복용 충동을 느끼는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중독 장애에서 온전히 치유받기 위해서는 전인적인 치료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의료적인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인 치료 및 사회와 직업 적응을 위한 치료, 정신적 및 영적 상담 및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에는 보통 행동심리 치료(behavioral therapy), 동기부여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과 약물 치료(medications)가 병행됩니다. 그러나 모든 치료 계획은 반드시 개인의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작성되고 실행되어야만 합니다. 환자들을 지원하는 서포트 그룹(Assertive Case Management/Narcotics Anonymous)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결국 육신마저 돌이킬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신과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나 심한 증세로 인해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된 환자들은 방문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정이나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등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고 초기에 영적 돌봄을 받았더라면, 결코 정신 질환이나 중독과 같은 장기적인 고통으로 삶이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잠4:23).

tdspark@gmail.com

세계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장려상



김태억 집사
(샌프란시스코 한인은혜장로교회)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저자 한홍 목사)

아멘 다음은?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 속에 우리 시시각각 많은 뉴스의 홍수에 살게 된다. 그렇지만 참 아쉽게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많은 뉴스를 접하며 기독교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2017년 실시된 한 기독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 71%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75%가 목회자와 교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도 채 안 되어 사람들에게 그저 잊혀져가는 종교로 인식되는 참담한 현실에 이른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삶과 신앙의 괴리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한홍 목사 저)’를 읽으면서 나 자신부터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아멘만 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교회 밖에서 아멘을 하려는 이정표를 세워 보게 되었다.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연장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말의 힘’, ‘말씀의 능력’, ‘사람과의 관계회복’, ‘완전한 사랑’ 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변화를 꾀해 본다면 분명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독교가 다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도 한다. 하나님은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말로서 상처받은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로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과 분열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다. “사탄의 언어가 죽음, 절망, 낙담, 파괴를 주었지만, 하나님의 언어는 우리에게 생명, 기쁨, 치유, 평안, 비전, 능력을 준다.”

얼마 전 베이징의 또 한 교회가 분열되고 말았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목사님과 장로들이 의견 차이로 서로를 비난하며 교회구성원들도 돌로 나누어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다. 이는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도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과 교만에 서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한다. 불평을 그치고 감사의 말을 하라. 불평의 반대는 감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라며 감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참 이상한 게 감사를 하다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부질없이 느껴지고 주님께 한없이 부끄러워져 회개기도까지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내가 문제인데 누구를 비난하며 누구를 탓하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의 힘이 이렇듯 중요하듯 말의 뿌리인 마음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 저자인 한홍 목사는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를 한다. “살아

있는 기도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기도를 하다보면 평화와 평온이 찾아오고 세상일을 잠시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정신도 맑아지고 판단력도 나아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약5:13). 그렇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올바른 길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된다. 이런 관계 속에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을지가 참으로 중요한 삶의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계를 정리해보면 자신과의 관계, 이웃사람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 관계들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있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영적, 육체적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건강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라는 말처럼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권위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첨이나 아부가 아닌 순종과 신실하면서 정직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 예로 저자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니엘, 다니엘 등은 든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 권위자 밑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부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받고 그들의 인격과 조인에 귀를 기울인 것이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이뤄 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희생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속소에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예수님처럼 동료에 대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다. 때로는 상대방의 일을 아무 보 상 없이 도와주기도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그저 묵묵히 하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는 사람과의 관계도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관계이다. 그것은 내가 아랫사람 시절 때 겪었던 일을 뒷사람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무엇보다 강요보다는 아랫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또한 무조건 가르치려고 해서 는 안 된다. 부모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었을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배우려는 것처럼 그들이 꼭 말라 할 때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훈련되면 나도 모르게 겸손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겸손은 나약함이 아닐뿐더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사실이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리”(벧전5:5) 즉, 겸손은 높은 지도자나 권위자들의 미덕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 스스로 해야 하는 결단인 것이다. <16면으로 계속>

제 7 회 미주 청소년

요 글짓기, 그림 공모전

2019 **효사랑**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가족과 가정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진정한 행복은 신앙의 가정에 있음을 배우고 바른 가치관으로 성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행사 내용]

작품 분야 : 글짓기, 그리기 부문

주 제 : "내 가족의 자랑거리"
"The Source of Pride and Joy of My Family"

접수 기간 : 2019년 3월 1일 ~ 3월 23일 (토) 마감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혹은 www.hyosarangusa.org/event (글짓기에 한함), 그림 작품은 개인별로 접수

참 가 비 : \$10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제출 및 문의 : 효사랑 선교회 (SBC) (714.670.8004 or 562.833.5520)
7342 Orangethorpe Ave #B113, Buena Park CA 90621
E-mail : hyosarangus@gmail.com

효 글짓기 : Letter size 3 pages (글자크기 12pt)

효 그림 : 크레파스화, 수채화, Drawing, 아크릴 등

초등부 (1st ~ 5th) - 14" x 17" (S)

중고등부 (6th ~ 12th) - 18" x 24" (L)

[발표 및 시상] 시상 일시 : 2019년 4월 6일 (토) 10시
출처: 장로교회 (515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상금 및 상품 : 대 상 (2) - 상금 \$500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 및 상장 수여
최우수상 (4) - 상금 \$300
우수 상 (6) - 상금 \$200

후원단체

영어로 보는 성경 (7)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본 강의는 영어로 말씀을 읽는데 필요한 기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깊은 신학적 해설이나 논쟁은 피하고 각권의 주요 말씀 한 두 구절씩 성경의 순서를 따라 진행한다.

Deuteronomy 5:8-10

(8)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9)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10)but showing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NIV 1984)

WORD & IDIOM

* in the form of ~ : ~의 형태를 가진 * beneath: 아래에 * waters: 하해(河海), (넓은) 물 * bow down: 절하다 * jealous: 질투하는 * punishing A for B: B에 대하여 A를 벌하다. * to the ~ generations: ~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 commandments: 율법

GRAMMAR

■ (8)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하늘 위에 또는 땅 아래 또는 물 아래 →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물 아래에 어떤 형태이건 우상을 만들지 마라.

* You shall ~, His shall, It shall ~, They shall ~ 등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반영한 표현으로 그렇게 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필연이나 운명 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You shall not make는 네가 우상(an idol)을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표현이다.

* make 와 make의 목적어(object) an idol 사이에 부사구 for yourself(전치사 + 명사)가 들어 있다. in the form anything에서 anything을 in heaven 이하가 수식하고 있다.

■ (9)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너는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또는 그들을 경배하지 마라 → 너는 그들에게 절을 하거나 그들을 경배 하지마라.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벌을 내리는 자녀들(O) 아버지의 죄에 대해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10)but showing love 3대와 4대까지 의 나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나 보여주는 사랑(O) 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천대까지 의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과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 왜냐하면, 나, 주 너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삼사 대까지 벌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 for 이하 10절까지가 2형식(S+V+C)로 된 하나의 긴 문장이다. punishing ~ 과 10절의 showing ~ 은 관계사절의 축약형 분사구문으로 a jealous God을 뒤에서 보충설명하며 수식하고 있다.

STUDY & THOUGH

■ 질투하는 하나님(a jealous God)이란 말은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분의 열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거나 하는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사람을 시기와 미워하며 상처를 주는 인간의 질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사랑을 베푸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이 삼사 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말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기보다는 복 주심을 기뻐하신다는 것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는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다. God's love is everlasting, but His wrath is for a short tim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훈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왕상9:15-24)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더욱 막강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항상 일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밭로를 짓고 그리고 무역업을 위한 배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도와 주고 있습니다.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다줍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나서서 모든 힘든 일을 다 감당해줬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일을 시키고 이스라엘에 함께 살게 했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총성되게 일을 감당한 숨은 일꾼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단 위에(왕상9:25-28)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

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번제와 감사제를 세 번씩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 하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됐을 때도 변함없이 더욱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수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미암은...(왕상10:1)

솔로몬 왕국의 흥통함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곳에 있던 스바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본 구절에 주목해야 할 동사가 3가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명예를 세상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써 얻은 명예와 지혜와 흥통함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시제가 강조에 강조형인 괴멸 부정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명예와 지혜와 흥통함이 갈수록 더 많이 세상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먼 곳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왔다’는 시제는 미완료형 “계속해서 온다”는 뜻입니다. 소문 듣고 몰려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목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왕상10:2-3)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도 풀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스바여왕은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은 막힘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 답해주었습니다. “은미하다”는 뜻은 “숨겨지다, 가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의 지혜로 숨겨지거나 가리워진 것이 없

이 다 속 시원하게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대답지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요셉과 다니엘의 꿈해몽과 관련된 말로써 그 어떠한 숨겨진 것도 가려진 것도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세상의 문제를 풀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는 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금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왕상10:4-6)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궁을 보고 과연 소문이 진실이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로 나옵니다. 항상 처음 나올 때는 의심만 호기심만으로 나올 때가 많지만 나와 보면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엄청난 지혜와 흥통함이 있는지 나올수록 길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혜와 부와 권세가 솔로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무조건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께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충만하십니다.

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왕상 10:7-8)

스바여왕이 소문을 듣고 와보니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나라의 흥통함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더 부러운 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를 항상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오늘 늘 말씀이 곁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지혜와 명철을 배우고 여호와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자로 목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시절을 좋아 과실을 맺으며 그 앞서가 마르지 않고 우리의 모든 행사가 다 흥통하게 되니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지혜를 날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늘 바른 길, 좋은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27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3770 서울시 동부구 양주동 340-(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기도회: 오전 6:30 (절미이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2)422-0751 경기도 중신시 우지동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4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2-568-0191, Fax: (02)3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중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석동 219 (151-200)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hinchon.org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82)2-926-4508 서울시 용인구 안암동 3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오후 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1942-6881, Fax: (02)1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상계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으로 달려가라!

리더십저널, 어원 맥머스 목사가 말하는 '건강한 교회성장을 위한 추진력 제공하는 리더십' 소개

리더십과 속도에 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속도는 중요한 리더십 역학으로 리더가 새로운 리더들을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리더십과 속도, 그리고 사도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리더십 발휘시 어떤 속도를 지녔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리더의 역할을 맡았거나, 또는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또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게 되면, 그 속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천천히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리더는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반역적이고, 순종적이지 않고, 훈련되지 못하고, 반대하는 자들로 인식하기도 한다.

비극적인 사실은, 속력을 교회의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적 리더가 되도록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갖고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리더는 사도적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인도하는 속도가 당신의 비전 영역에서 누가 남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혁명적인 리더는 냉담하거나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로 낙인찍히곤 한다. 그들은 상처받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도적 리더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공동체의 필요, 그리고 목적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희생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운동이 시작된다. 이들은 믿음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그들은 속력, 즉 목적을 가진 속도를 의인화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적 리더십의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역시 중요하다. 질량이 빠진 속력은 정지와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운동은 방향이 있는 속도와, 그곳으로 함께 가는 사람들 양자 모두가 필요하다. 사도적 리더

는 영적인 기쁨이 이상이다. 그는 영적인 촉매(catalyst)다. 전자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후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빠르게 움직인다.

기업가는 자기 자신의 노력에서 전적인 만족감을 찾는다. 그는 개인의 꿈을

의미하고, 사람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은 질량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 운동을 형성하는데 똑같이 중요하다.

질량의 크기는 이해하기가 쉽다. 100명의 사람들은 10명보다 많다. 이것은 양을 말하는데, 농도는 영적인 성숙도의 깊이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질을 말한다.

속력과 관련해서, 사도적 리더의 첫 번째 초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 앞으로 불러내는 것이다. 사람들이 같은



질량-크기와 농도 중요...목적 가진 속도 의인화, 혼자서 가지 않아
속력-하나님의 목적 앞으로 불러내고 성령에 대한 그룹반응 가속화

성취하면 만족한다. 반면에 사도적 리더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은 혼자서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일을 시작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방해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느리다는 이유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의 전체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는 데 있다.

사도적 리더의 초점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질량과 관련된 두 가지와 △속력과 관련된 두 가지, 첫 번째는 질량의 크기와 농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있어야 한다. 실제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은 질량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사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도적 리더는 초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는 호기심만 있는 100명의 사람들보다는 공동 목표를 가진 10명의 사람을 선호한다.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그룹의 반응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을 성령의 바람으로 경험하며, 이해만 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추진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추진력을 얻게 되면 그 힘은 멈출 수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실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사도적 리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불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반응의 속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다.

“임신 하청” 아닌 “축복 나눔” 으로

(3면에서 계속)

대리모 임신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단체마다 나름의 접근법과 기준이 있다. 해마다 55건의 대리모 임신 출산을 관리하는 “서로게이트 솔루션”의 대표 케일 개럿은 “양립 가능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에이전시는 임신이 오롯이 혼자서만 감당하는 일이 아님을 잘 알기에 임신 과정에서 대리모의 배우자에게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인구통계학적으로는 마음이 넉넉하고 가족의 가치를 잘 아는 크리스천 전업주부와 군인 아내들이 이 일에 적임자임이 입증되었다.

오렐로버츠 대학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크리스천 개럿은 10여 년 전에 이 에이전시를 세웠다. 개럿은 처음에는 상업적 대리모 임신이 대부분 불법인 유럽의 부부들을 위해 대리모로 아이들을 낳아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대리모와 예비 부모의 관계가 “임신 과정 전반의 순조로운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리모와 부모가 될 사람들은 까다로운 두 가지 사회 문제, 곧 결혼 관계-예비 부모가 정확히 누구인지-와 낙태-어떤 상황에서 임신을 종료할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알아야 한다. 아이가 유전병에 걸렸거나 부모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안 대리모가 아이를 넘겨주지 않으려는 경우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게 양측이 합의에 이르도록 에이전시가 도와줄 수 있다.

2017년 가을, 대중의 이목을 끈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미국 최초의 대리모 임신 판례가 될 뻔한 공판을 거부한 적이 있다. 조지아 주의 51세 독신남이 자신의 정자와 기부 받은 난자를 결합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리모를 구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이 임신한 세상둥이 중 두 아이의 낙태를 거부했다.

멜리사 쿡은 자신을 고용한 체스터 세븐 무어 2세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출산 후에 양육권을 청구했다. 그가 대리모에게 아이를 “줄이랴”고 설득하면서 무어 스스로 자신은 재정이나 건강 면에서 세 아이를 키울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를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과 페미니즘 옹호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는 했지만 하급 법원은 그녀에게 양육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앞우드 같은 크리스천 대리모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하고 자신과 관점이 같은 부부들만 만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한다. 앞우드는 “어떤 경우든 낙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예비 부모가 당신을 선택하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개럿은 자신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에서 예비 부모와 대리모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소송으로 간 경우도 없다고 말한다. “대리모에게 임신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대리모 임신이 흔히 이뤄지는 대부분의 주에서 대리모 임신에 관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예비 부모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크게 할 말이 없고, 대리모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럿의 말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대리모가 ‘일하면 임신을 중단할 게요’라고 말했다 해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면 텍사스 법률은 임신한 몸이 대리모의 몸이기 때문에 그가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리모가 예비 부모와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녀에게는 거부할 법적 권한이 있어요.”

이처럼 크리스천이나 생명 옹호론자들은 대리모 임신을 긍정적 영역(나눔을 통한 축복)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상업적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들린다. 바로 “구글 베이비(Google Baby)”란 신조어가 이를 말해준다.

‘구글 베이비’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 말로, 선진국 출신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체외수정된 뒤 수정란을 제3국으로 옮겨 개도국 여성에게 ‘임신 하청’을 주는 구조를 거대 IT기업의 운영 구조에 빗대어 표현하는 말이다. 실제로, 인도의 대리 출산 시장 가격은 거의 4억 달러로, “세계의 대리모 공장”이란 오명(?)까지 받았다. 그러한 비판을 인식한 인도 정부의 제한 조치로(태국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결론으로, 전 세계적인 대리모 산업은 확산일로다. ‘아기공장’으로 낙인찍힌 인도를 포함해 최근에는 미국이 ‘대리모 수출국’으로 새롭게 부상했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 대리모 규제 움직임에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대리모를 허용한 미국 일부 주의 대리모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리모 찬반논란도 뜨겁다. ‘아이를 생산하는 육체노동’이라는 옹호론에 맞서 ‘생명윤리에 반하는 행위’로 국제적 규제를 강화해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면에서 계속)

그러나 저도 그렇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을 잘 지적하지 정작 자신들의 교만을 못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주님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마 7:3, 5) 이르신 것이다.

이제 그저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는 아멘에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아멘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 내 삶의 인도자인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아멘을 외쳐본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어가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지혜롭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영적 태도가 바뀔 때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아멘.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